



정답과 해설

중등국어



1. 주체적 감상과 쓰기

(1) 다양한 해석과 비평



11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너는 더 디게 온다.

01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와 같은 구절에서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며 ‘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적 대상인 ‘봄’을 ‘너’로 인격화하여 ‘봄’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봄’을 만난 이후의 감격과 예찬적 태도를 강조한다. 반면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시적 대상인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15~16행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너’를 맞이하게 된 말하는 이는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너’를 껴안아 본다. 이러한 말하는 이의 행동은 시적 대상, 즉 ‘너’로 인격화된 ‘봄’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02 1~10행에서 말하는 이는 ‘너’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올 것이라며 확신과 믿음의 태도를 드러낸다. ‘너’가 더디게 와도 말하는 이의 이러한 확신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이후 11~16행에서는 마침내 ‘너’를 맞이하여 감격한 말하는 이의 심리가 드러난다.

03 이 시에서 ‘봄’은 말하는 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당위적인 속성을 지닌다. 또한 ‘봄’은 생명의 소생이라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반드시 도래할 희망을 의미한다.

04 ‘뿔뿔 구석’과 ‘썩은 물웅덩이’는 ‘봄’이 쉽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즉,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

05 **서술형**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어서 빨리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만큼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 시의 말하는 이 역시 이러한 마음에서 ‘너’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예상 문제

본문 12~15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⑤ 05 ③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6**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너’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2단계** **07** ‘다급한 사연’에는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며, ‘바람’은 이러한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3단계** **08**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찾아온 ‘봄’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너’에 대한 말하는 이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9 ④ **10** ② **11** ③ **12** 마을에 최신희 증기 방앗간이 들어오면서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은 증기 방앗간에 일거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13** ②

01 문학 작품의 해석은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이나 작품의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만을 기준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자칫 너무 주관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이 시의 ‘나’는 계절이 순환하는 섭리에 따라 ‘너’가 당연히 올 것이라 믿으며 ‘너’를 기다린다. ‘너’는 시련과 역경 속에 매우 더디게 오지만 끝내 ‘나’는 ‘너’와 만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3 이 시의 말하는 이에게 ‘봄’은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자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희망이다. ‘봄’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과 시련도 따르지만, 반드시 ‘봄’이 도래하여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봄’은 항상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곁에 없지만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되는 존재이므로, ②는 해석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

내용 기르기

문학 작품의 해석은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개인이마다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나 해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지. 하지만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만으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자칫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우려가 있어. 따라서 객관적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면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의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지.

04 이 시의 11~12행에서 말하는 이는 ‘너를 보면 눈부서 /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15~16행에서 가깝스로 두 팔을 벌려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너'를 껴안아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너'를 일어나 맞이하지 못한 것은 기다리던 '너'가 늦게 온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던 '너'를 맞이한 감격과 기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5 <보기>의 비평문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이 시를 해석하고 있다. ③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해당하는데, <보기>의 비평문의 내용에는 작가의 삶이 「봄」이라는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6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에 제시된 시어인 '너는 온다'를 활용하여 썼다.	☐
'단정적', '확신에 찬'과 같은 말하는 이의 어조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너'에 대한 '믿음', '확신' 등 말하는 이의 태도를 썼다.	☐

2단계 07 '다급한 사연'에는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며, '바람'은 이러한 사연을 전달하며 지쳐 나자 빠져 있는 '봄'을 흔들어 깨운다. 즉 '바람'은 '봄'을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전해 주는 매개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기다림', '간절함' 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다급한 사연'의 구체적인 내용을 썼다.	☐
'전달', '전하다', '매개체' 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이 시에서 '바람'의 상징적 의미를 썼다.	☐

3단계 08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 즉 승리자로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예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의인화', '인격화' 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이 시의 마지막 시행에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썼다.	☐
'예찬', '찬양' 등의 낱말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태도나 정서를 썼다.	☐

09 이 글의 주인공은 '코르니유' 영감이고, 이 글은 서술자인 '나'가 '코르니유' 영감과 관련한 사건을 관찰하며 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글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에 담긴 비밀이 밝혀지는 극적 반전을 통해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코르니유' 영감의 집념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이 글은 증기 방앗간이 성행하여 풍차 방앗간이 몰락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코르니유' 영감에 미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③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프로방스의 풍습과 전통인 풍차 방앗간도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서술자는 이야기의 결말에서 이러한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⑤ 이 글의 (가)에서는 "자, 이 풍차 방앗간의 비밀이 무엇인지 들어 볼까?"라고 말하며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의 비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글이 전개된다.

10 '코르니유' 영감은 풍차 방앗간을 지켜 내려고 방앗간에 여전히 일감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였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코르니유'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모습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11 증기 방앗간의 등장 이후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풍차 방앗간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도 돌아가지 않은 지 오래였다. (다)에서 아이들이 확인한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은 그 안에 텅텅 비어 있었고, 밀가루 부대가 하나도 없었으며,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벽이나 구석에 처진 거미줄 위에도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조차 없었으며, 풍차 방아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는 모습이었다.

12 서술형 풍차 방앗간이 가득했던 마을에 최신식 증기 방앗간이 들어서면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증기 방앗간을 찾게 되고 다른 풍차 방앗간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다.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 역시 증기 방앗간에 일거리를 빼앗기게 되어 방앗간 안에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이 텅텅 비어 있게 된 이유를 썼다.	☐
(가)와 (라)의 내용을 활용하고, 증기 방앗간의 등장과 연관 지어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13 <보기>의 (ㄱ)과 (ㄴ)은 하나의 작품을 서로 다른 관점을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ㄱ)은 주로 프로방스 지방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주민들의 모습을 담았던 작가의 작품 성향과 연관 지어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ㄴ)은 1860년대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코르니유' 영감의 모습을 분석한 것으로, 작품에 당시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하지만 (ㄱ)에서 작가가 프로방스 마을에서 겪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이 글과 실제 사건을 비교·대조하지도 않았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작가인 '알퐁스 도데'가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 주민들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역의 정겨운 풍경과 함께 아름답게 묘사하는 작품 성향을 보인다고 말하며, 이를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속 주민들의 성격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③ (ㄴ)은 작품이 쓰인 186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인공인 '코르니유' 영감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ㄴ)은 소설이 창작된 186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 ⑤ (ㄱ)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ㄴ)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내공 기르기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작품의 내적 특징만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사회적 배경이나 작가, 독자 등의 작품 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꼭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야. 두 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지.

(2) 맥락을 담은 글 쓰기

내공 쌓기 ①

19쪽

01 ⑤ 02 ④ 03 ③ 04 ㉠: 주제, ㉡: 목적, ㉢: (예상) 독자

01 만화 속 학생의 말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내용으로, 왜 글을 쓰려고 하는지, 예상하는 독자는 누구인지, 글을 게재할 매체는 무엇인지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를 알려 주고 싶은데 기억나는 정보가 부족해 곤란해하고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예상 독자는 블로그에 방문하는 친구들이다.
 ② 이 학생은 제주도에 여행 후기에 관해 글을 쓰고자 한다.
 ③ 글을 게재할 매체는 블로그이다.
 ④ 이 학생이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은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고,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여행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함이다.

02 만화 속 학생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대한 여행 정보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 또, 자신이 사용한 표현과 문장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면서 문단 배열과 표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대한 고민은 만화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03 1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전체적인 방향인 '주제', 글을 쓰는 이유에 해당하는 '목적', 글을 읽을 대상인 '예상 독자', 독자에게 글이 전달될 방식에 해당하는 '매체' 등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에 '주제'라고 썼다.	☐
㉡에 '목적'이라고 썼다.	☐
㉢에 '(예상) 독자'라고 썼다.	☐

내공 쌓기 ②

21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1 '수지'가 쓴 서평에는 소설의 줄거리,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 작가의 작품 성향, 소설을 읽고 난 후 얻은 깨달음 등이 드러나 있다. 「일가」의 주인공인 '아저씨'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태도와 그에 대한 '수지'의 생각은 나타나 있으나,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수지'의 구체적인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다.

02 '수지'는 처음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아저씨'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엄마'의 입장에 공감하였으나, 후에 다시 소설을 읽게 되었을 때에는 '아저씨'의 처지와 입장이 이해가 되어 '아저씨'에게 안쓰러움을 느낀다. '수지'는 소설의 주인공이 일 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것 같이 자신도 한 살을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03 '수지'는 소설 속 '아저씨'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아저씨'의 외로운 처지에 안쓰러움을 느끼고, 자신도 일가친척과 주변 이웃들,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04 이 글에서 '수지'는 소설 「일가」를 읽고 난 후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어, 글이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지'가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와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겪은 생각의 변화도 나타나 있어, 읽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독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수지'가 작가의 작품 세계와 연관 지어 작품을 이해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ㄹ. '수지'는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작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작품을 보다 폭넓게 감상하기 위한 방법이다.

내공 쌓기 ③

23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1 글쓰기의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로 표현하기 위한 중심 생각을 명료화하고, 글을 쓰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결정하고, 글을 어떤 매체에 실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02 '수지'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작품인 소설 「일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여 감동과 깨달음을 공유하기 위해 서평을 쓰고자 한다.

03 '수지'는 「일가」에 관한 서평을 쓰기로 한 후 서평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주제에 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는 자유 연상하기 방법을 활용하였다.

04 '수지'가 「일가」의 서평을 쓸 때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 떠올린 내용은 이 소설을 읽은 까닭, 작가의 작품 성향, 소설의 주요 내용, 소설에 대한 자신의 평가, 소설 속 인물의 성격, 소설을 읽은 느낌, 소설을 읽고 깨달은 점 등이다. 하지만 '수지'가 「일가」를 읽은 다른 친구들의 평가를 떠올렸다는 내용은 '수지'가 자유 연상한 내용에 나와 있지 않다.

내공 쌓기 ④

25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1 글을 쓸 때에는 책,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야 한다. 이때 책이나 신문 기사와 같은 인쇄 매체에 비해 인터넷과 같은 전자 매체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가려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글을 쓰는 과정 중 가장 먼저 시행하는 단계는 '계획하기'이다.
- ②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전자 매체 중 신속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전자 매체이다.
- ③ 수집한 자료 중 글의 주제, 목적 등에 따라 활용할 자료를 선별하고 선택해야 한다.
- ⑤ 글의 주제와 목적 등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해야 하며, 무조건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자유롭게 떠올렸던 내용들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글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할 수 있고, 내용들 간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03 '수지'는 최근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일가」를 읽고 난 후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언급하며 작가의 작품 성향을 바탕으로 「일가」의 주제 의식을 해석하고 있다.

04 〈보기〉에는 「일가」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며,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친구들도 이 소설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공 쌓기 ⑤

2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1 글을 쓸 때에는 가장 먼저 목적, 주제, 독자, 매체를 설정하며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글로 쓸 내용을 마련하고 마련한 내용들의 순서를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쓴다. 초고를 다 쓴 후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점검하면서 고쳐쓰기를 한다.

02 '초고 쓰기' 단계는 앞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직접 글을 써 내려가는 단계이다. 이때 문맥을 고려해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글쓰기의 과정 중 '계획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 ② 글쓰기의 과정 중 '자료 수집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글쓰기의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글쓰기의 과정 중 '고쳐쓰기'에 대한 설명이다.

03 글을 어느 매체에 올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글쓰기 단계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04 '수지'는 자신이 인상 깊게 읽은 소설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서평을 썼다. 따라서 글을 읽을 예상 독자는 '수지'의 또래 친구들이며, 글을 쓸 때 이들의 어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쓰다.'라는 뜻의 '구사하다'라는 단어는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쉬운 단어인 '사용하다' 혹은 '쓰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종합예상문제

본문 28~31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생각 그물 08 ⑤ 09 ③ 10 ① 11 ④
12 ① 13 ⑤ 14 ② 15 ⑤ 16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17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자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일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2단계** 18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단계** 19 글쓴이는 명절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소설 「일가」를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댁에 가기로 한다. 또한 평소에도 친척들과 일가의 정을 나누고,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01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이를 해결하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다.

02 초고를 쓰고 난 후에는 글을 여러 번 읽어 보며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고쳐 써야 한다.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잘 고려했는지, 글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불필요하거나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문장과 단어의 사용이 바르고 정확한지 점검하는 과정을 겪으며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떠올린 내용은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글에 반영해야 한다.

③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블로그나 누리 소통망에 글을 써서 올리는 것도 글쓰기 활동에 해당한다.

④ 자료를 찾을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모든 매체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⑤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글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짜면서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사건의 전개 과정 등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좋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처음 - 가운데 - 끝'의 짜임에 따라, 설득하는 글은 '서론 - 본론 - 결론'의 짜임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어떤 순서로 내용을 배치해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03 ①~④는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해당한다. 반면 ⑤의 글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글쓰기 자체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쓰기 과정 중 '초고 쓰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이다.

②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이다.

③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이다.

④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이다.

04 이 학생이 글을 쓰는 목적은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고, 제주도에서 가려는 친구들에게 여행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①, ②에서 학생은 제주도 여행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기로 하였다.

③에서 학생은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이 자신의 글을 흥미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예상 독자가 '블로그에 방문하는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⑤에서 학생은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를 알려 주고 싶다고 하였다.

05 이 학생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어떤 사진을 올릴지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 또한 글을 쓴 후에도 어색한 표현과 부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글의 갈래를 정하지 못해서 겪는 문제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이 학생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평을 쓰기 위한 작품 해석,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글의 주제나 목적에 어울리는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자료의 부족 문제를 바르고 정확한 표현으로 보완하려고 하므로 적절한 조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글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다.

③ 글쓰기 과정 중 '초고 쓰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다.

⑤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다. 하지만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 적합한 것을 선별하라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중심 주제를 적고, 그 주제로부터 연상되는 것을 생각이 흐르는 대로 지도처럼 기록하는 방법을 '생각 그물'이라고 한다.

08 자료 수집 및 선별 과정에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때 글을 읽을 예상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진 자료인지는 공신력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09 <보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떠올린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직하며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어떤 순서로 내용을 배치해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초고 쓰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④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0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글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불필요하거나 보충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글을 쓸 때에는 수집한 자료를 모두 다 활용하지 않아도 되며, 작품을 쓴 작가가 아닌 독자의 수준이나 반응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1 이 글의 갈래는 '서평'이다. 서평은 책이나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이때 서평을 쓸 대상이 되는 해당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다른 책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12 이 글의 (가)에서는 글쓴이가 이 소설을 읽게 된 계기가 아니라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13 이 글의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된 계기를 쓰고, '가운데' 부분에서 소설의 줄거리와 느낌 등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끝' 부분에서는 이 소설에 대한 평가 및 깨달음을 언급하며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4 글쓴이는 (마)에서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아진 최근의 명절 풍경을 언급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ㄴ). (라)에서는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과 작가의 다른 작품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평집을 활용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ㄷ).

15 ㉠은 「일가」에 대한 친구들의 평가가 아닌 글쓴이의 평가에 해당하며,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16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을 뜻하는 낱말은 '피란(避亂)'이다.

오답 풀이 ① '대피(待避)'는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피함'을 뜻한다.

② '이사(移徙)'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을 뜻한다.

③ '이주(移住)'는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을 뜻한다.

④ '도주(逃走)'는 '피하거나 쫓겨어 달아남'을 뜻한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7** 안내문에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바)에서 글쓴이는 「일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므로, 친구들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자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일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바)의 「일가」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친구들도 읽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바람 등을 반영하여 썼다.	☐
「안내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썼다.	☐

2단계 **18** 이 서평은 또래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하고 있으므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라는 뜻의 '구사하다'라는 단어는 친구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혹은 '쓰다'로 쉽게 고쳐 쓰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확인
예상 독자를 언급하여 썼다.	☐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3단계 **19** (마)에서 글쓴이는 소설 「일가」를 읽은 뒤 달라진 자신의 태도를 언급하며,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뵙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고,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첫 번째 문장에서 (마)의 '명절'과 관련한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썼다.	☐
두 번째 문장에서 「일가」의 정, '주변 이웃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깨달음을 일반화하여 썼다.	☐

대단원 평가



-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이 글의 서술자는 시대의 변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07 ① 08 ①
 09 ② 10 ④ 11 ③ 12 자유 연상하기
 13 ⑤

01 이 시에서 봄이 오기 전의 겨울은 '너'가 겪어 내야 하는 시련과 역경이며,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언젠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희망을 상징하는 봄이 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02 (가)는 문학 작품에는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 시의 작가인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는 독재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라는 내용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가)의 방법으로 이 시를 해석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나)와 같이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② (다)와 같이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③ (라)와 같이 독자가 작품을 읽고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03 이 시에서 '바람'은 '너'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지쳐 나자빠진 '너'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시어는 '빨발 구석'과 '씩은 물 웅덩이'이다.

04 '코르니유' 영감은 증기 방앗간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풍차 방앗간을 고집한 인물이다. '코르니유' 영감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전통을 지키고자 풍차 방앗간에 여전히 일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

오답 풀이 ㄱ. '코르니유' 영감이 풍차 방앗간의 일이 많은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속인 것은 풍차 방앗간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코르니유' 영감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므로, 그를 물질 만능주의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ㄷ. (다)에서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의 마지막 풍차 방앗간도 멈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이 유일한 풍차 방앗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05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풍차 방앗간이 점점 사라지고, 편리하고 빠른 증기 방앗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다.

06 서술형 이 글의 서술자는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풍차 방앗간을 물려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풍차 방앗간이 멈추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며, 풍차의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다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평가 기준	확인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서술자의 인식을 반영하여 썼다.	☐

07 글을 쓰는 목적은 처음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하고 그 이후 모든 글쓰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내용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글을 쓰고 난 후에는 부족한 부분을 고쳐 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떠올린 글감과 수집한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⑤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용이 어려우면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08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에는 먼저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설정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9 글쓴이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인 ‘아저씨’를 떠올린다.

10 작가의 작품 성향과 소설에 대한 해석은 서평의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기에 더 적합하다.

11 (마)의 내용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독자의 입장에서 얻은 깨달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12 서술형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 보며 글로 쓸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을 ‘자유 연상하기’라고 한다.

13 글쓴이는 예전과 달리 명절에도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 「일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소설이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㉔은 고쳐쓰기 전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도망’은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의 의미이므로, 육이오 전쟁 때라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 ㉔에는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이라는 의미의 ‘피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구사하다’는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라는 의미이다. 이 서평의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므로 좀 더 쉬운 낱말인 ‘사용하다’ 혹은 ‘쓰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어색함’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마주 대하여 자연스럽지 못할.’의 의미이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아저씨’에 대한 감정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불만’, ‘불편함’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안스럽다’는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이 마음이 아프고 가엾다.’라는 의미의 ‘안쓰럽다’의 잘못된 표기이다.

2. 문장을 엮는 손, 과정을 읽는 눈



(1) 문장의 짜임과 양상



내공 쌓기 ①

01 ③ **02** ⑤ **03**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묶을 수 있다. **04** ③

01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①은 형태소, ②는 음운, ④는 문단, ⑤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02 이 문장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모두 포함된 문장이다. ‘자’는 독립어로서 독립 성분에, ‘내가’는 주어로서 주성분에, ‘이’는 관형어로서 부속 성분에, ‘이 공을’은 목적어로서 주성분에, ‘힘껏’은 부사어로서 부속 성분에, ‘던질게’는 서술어로서 주성분에 속한다.

03 서술형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묶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문장 성분을 분류하는 기준이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내용을 썼다.	☐
문장 성분을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묶을 수 있다고 썼다.	☐
제시된 문장의 형식에 맞게 썼다.	☐

04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고, 문장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성분인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내공 쌓기 ②

43쪽 **01** ① **02** ㉠: 주어, ㉡: 바람이 **03** ② **04** ①

01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묶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주성분은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나. 주로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속 성분이다.

ㄹ.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독립 성분이다.

02 서술형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고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은 주어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바람이’이고 ‘세차계’는 부사어, ‘분다’는 서술어이다.

03 ‘두더지가 굴을 뚫다.’는 주어(‘두더지가’), 목적어(‘굴을’), 서술어(‘뚫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모두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에 속한다. 이 문장에서 다른 주성분을 꾸미는 문장 성분인 부속 성분은 쓰이지 않았다.

04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서술어는 다른 성분을 요구하기도 한다. ②, ③, ④, ⑤의 서술어는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반면, ①의 서술어인 ‘되었다’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필요로 한다. 이때 ‘무엇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한다.

내공 쌓기 ③

45쪽

01 ③ 02 ④ 03 밑줄 친 문장 성분은 독립 성분이고,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이다.

01 ‘새’는 뒤에 오는 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아주’는 부사로서 부사어로는 쓰일 수 있지만 관형어로는 쓰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② 관형사인 ‘저’, ‘모든’은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④ 형용사의 관형사형인 ‘빨간’은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⑤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인 ‘주인공의’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참고 자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말

관형사	예 새 옷을 한 벌 샀다.
체언+관형격 조사 ‘의’	예 도시의 밤은 밝다.
관형절	예 내가 먹을 물도 부족하다.

0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④는 ‘주어, 관형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부사어는 쓰이지 않았다.

내공 기르기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고 때로는 부사나 관형사, 체언을 꾸며 주어 그 뜻을 분명하게 해 주는 말인 부사에는 문장의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가 있어. 이 ‘문장 부사’ 중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해. 예를 들어 ‘그러나’, ‘그런데’, ‘또한’ 같은 말이 있지. 접속 부사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03 서술형 ‘우아’, ‘성엽아’, ‘응’은 독립 성분이다.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주로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밑줄 친 문장 성분이 ‘독립 성분’이라고 2어절로 썼다.	☐
독립 성분이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이라는 내용을 밝혀서 썼다.	☐

내공 쌓기 ④

47쪽

01 ④ 02 ⑤ 03 ②

01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④에서 ‘유연은’은 주어, ‘기른다’는 서술어로, ④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반면, ①, ②, ③, 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주어는 ‘햇볕은’, ‘바람은’이고 서술어는 ‘따뜻하고’와 ‘싱그럽다’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② 주어는 ‘우리는’, ‘그가’이고 서술어는 ‘도착했다’, ‘들었다’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③ 주어는 ‘누나는’, ‘동생은’이고 서술어는 ‘치고’, ‘부른다’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⑤ 주어는 ‘현주는’, ‘정은은’이고 서술어는 ‘먹었지만’, ‘먹었다’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02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책을 읽었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이 문장은 ‘우리는 책을 읽었다.’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추천하셨다.’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이 문장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추천하셨다.’를 자신의 문장 성분(관형절)으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03 겹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이어진문장과,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②는 ‘언니가 옷을 빌려주다’를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고 ①, ③, ④, ⑤는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비가 많이 내리다.’와 ‘홍수가 나다.’가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③ ‘그는 늦잠을 잤다.’와 ‘지각은 겨우 면했다.’가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④ ‘날씨가 좋아지다.’와 ‘공원으로 소풍을 가야겠다.’가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⑤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와 ‘짜꿍은 수학을 좋아한다.’가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내공 쌓기 ⑤

49쪽

01 ① 02 ① 03 ①

01 '비가 오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는 '비가 오다.'와 '날씨가 춥지 않다.'가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④, ⑤ 이 문장은 두 홑문장이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 이 문장은 문장 '비가 오다.'와 '날씨가 춥지 않다.'가 이어진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02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②, ③, ④, 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비가 오다.'와 '곡식이 잘 자란다.'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우리는 비를 피하다.'와 '우리는 가게로 들어갔다.'가 의도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설령 비가 오다.'와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가 양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비가 그치지 않았다.'와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가 원인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3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배경 등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다. 이때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에는 '-(으)면, -거든, -(아)야, -던들' 등이 있다. '네가 나에게 책을 빌려주면, 내가 대신 청소를 해 줄게.'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연결 어미 '-니까'에 의해 두 문장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두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연결 어미 '-더라도'에 의해 두 문장이 양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두 문장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내공 쌓기 ⑥

51쪽

01 ① 02 ① 03 ③ 04 풍경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01 이 문장은 '우리는 알았다.'와 '그가 떠났다.'가 결합된 문장이다. '그가 떠났다.'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서 절 '그가 떠났음'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그가 떠났음'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듯 '그가 떠났음'은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①은 이어진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02 ㄱ의 밑줄 친 부분은 서술절, ㄴ의 밑줄 친 부분은 부사절, ㄷ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절, ㄹ의 밑줄 친 부분은 인용절, ㅁ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절이다.

03 '그 선생님을 만난'은 '기억'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그런데 '눈썹이 휘날리도록'은 뒤의 '달렸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오답 풀이 ①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비가 오는'이라는 관형절로 사용되어 '소리'를 꾸며 준다.

② '지난주에 보다.'라는 문장이 '지난주에 본'이라는 관형절로 사용되어 '영화'를 꾸며 준다.

④ '형이 사용했다.'라는 문장이 '형이 사용했던'이라는 관형절로 사용되어 '물건'을 꾸며 준다.

⑤ '그가 쓰다.'라는 문장이 '그가 쓴'이라는 관형절로 사용되어 '소설'을 꾸며 준다.

04 서술형 ㄱ에서 '정말'은 부사어이다. ㄴ이 ㄱ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려면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도록' 등과 같은 형태로 안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눈이 부시다.'를 부사절로 만들어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도록' 등과 같이 썼다.	☐
'풍경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등과 같이 안은문장을 썼다.	☐

내공 쌓기 ⑦

53쪽

01 ⑤ 02 ③ 03 ②

01 이 문장은 '장미와 함께하다.'와 '사랑이 싹틔니다.'라는 두 홑문장이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두 홑문장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졌으므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2 제시된 문장은 '밤하늘에 (꽃이) 피어나다.'라는 홑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③에서 '그가 온다.'라는 홑문장 역시 '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문장에 관형절로 안겨 있다.

03 '유등이 켜지자 남강은 은하수가 됩니다.'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자'를 사용해서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유등이 켜진'이 '남강'을 꾸며 주는 관형절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③ 두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두 문장이 선택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⑤ 두 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01 ⑤ 02 ② 03 ⑤ 04 • 공통점: ㉠과 ㉡ 모두 (주로)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준다. • 차이점: ㉠은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고, ㉡은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④ 10 ④
- 11 ③ 12 꽃이 피고, 새가 운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④ 18 ④
- 19 ㉠: -니, ㉡: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0 ㉠: 독립 성분, ㉡: 보어, ㉢: 부사어 **2단계** 21 이 문장의 주성분은 주어인 '노을이'와 서술어인 '물들었다'이며, 부속 성분은 부사어인 '불게'이다. **3단계** 22 이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이고 그 종류는 명사절이다.

01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독립 성분이라고 하는데, 독립어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독립어를 빼도 원래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02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에는 서술어, ㉡에는 주어, ㉢에는 목적어, ㉣에는 보어가 없고, ㉤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다.

03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묶을 수 있다. 이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에 속한다. ⑤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며 부사어는 관형어와 같이 부속 성분에 속한다.

- 오답 풀이** ① '사과가(주어) + 맛있대(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② '사과는(주어) + 과일이다(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③ '동생이(주어) + 사과를(목적어) + 먹는다(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④ '그것은(주어) + 사과가(보어) + 아니다(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04 서술형 '새 옷이 무척 예쁘구나.'에서 '새'는 관형어, '무척'은 부사어이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모두 부속 성분으로, 주로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준다.

평가 기준	확인
공통점으로 ㉠과 ㉡ 모두 (주로)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준다는 내용을 썼다.	☐
차이점으로 ㉠은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고, ㉡은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는 내용을 썼다.	☐

05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낸다. ④의 '확실히'는 부사어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며,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6 ㉠은 관형어,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에는 관형어가 없다는 ④의 설명이 적절하다.

07 ②는 '부사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홑문장이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오는 겹문장이다.

08 ②는 '단풍이 들다.'라는 문장을 관형절로 안은 문장으로, 겹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코가 길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겹문장이다.
 ③ '하늘은 맑다'와 '바람은 시원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겹문장이다.
 ④ '원진은(주어) + 고개를(목적어) + 깊숙이(부사어) + 숙였다(서술어)'의 구조로 된 홑문장이다.
 ⑤ '나는(주어) + 헤리에게(부사어) + 책을(목적어) + 선물로(부사어) + 주었다(서술어)'의 구조로 된 홑문장이다.

09 겹문장은 홑문장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고, 안은문장은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10 ④는 '비가 오다.'와 '곡식이 잘 자란다.'가 나란히 이어진 문장으로,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④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②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③ '비가 오는'이라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11 ㉠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과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양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동시(시간 관계)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의도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참고 자료】 이어진문장을 만드는 연결 어미

이어진문장의 종류	연결 어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나열: -고, -(으)며 • 대조: -지만, -(으)나 • 선택: -거나, -든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원인(이유):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 조건: -(으)면, -거든, -(아)야, -던들 •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고자, -게, -도록 • 양보: -(아)도, -더라도, -(으)ㄴ들, -(으)ㄴ지라도, -(으)ㄴ망정 • 배경(상황): -ㄴ데, -ㄴ진대 • 동시(시간 관계): -(으)며, -(으)면서, -고서, -자, -자마자

12 서술형 연결 어미 ‘-고’, ‘-(으)며’ 등을 사용해서 두 개의 홀문장이 나열의 의미를 갖도록 이어진문장을 만들어 본다. 둘 이상의 홀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꽃이 피고, 새가 운다.’와 같이 나열의 의미 관계가 드러나게 썼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문장의 종류를 밝혀 썼다.	☐

13 ㄱ에서는 단어인 ‘진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쓰였고, ㄴ에서는 문장인 ‘그가 떠났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쓰였다. ㄴ에서 ‘그가 떠났다.’라는 홀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ㄴ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반면 ㄱ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홀문장이다.

14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은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①에는 명사절, ②에는 서술절, ③에는 관형절, ④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15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을 안고 있다. ①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 ②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③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 ④와 ⑤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16 ㄱ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밑줄 친 부분은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ㄴ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밑줄 친 부분은 ‘민수’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은기’가 말한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독립 성분이며, 인용절을 안은 문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17 ‘밤하늘에 피어나는’은 본래 ‘밤하늘에 꽃이 피어나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절로, 체언인 ‘꽃’을 꾸며 주고 있다.

18 (가)는 주로 홀문장을 사용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준다. 반면, (나)는 주로 겹문장을 사용하여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사건이나 사실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낸다.

19 서술형 ㉠은 ‘눈을 떴다.’라는 홀문장과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라는 홀문장이 연결 어미 ‘-니’를 통해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니’를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를 썼다.	☐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0 문장 성분 중에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고,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로 ‘독립 성분’을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보어’를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부사어’를 썼다.	☐

2단계 21 이 문장은 ‘주어+부사어+서술어’로 이루어진 홀문장이다. 주성분은 ‘노을이(주어)’, ‘물들었다(서술어)’이고 부속 성분은 ‘불게(부사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노을이’가 주어로, 주성분이라고 썼다.	☐
‘물들었다’가 서술어로, 주성분이라고 썼다.	☐
‘불게’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라고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3단계 22 이 문장에는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절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가 안겨 있다. 이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은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안긴문장으로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썼다.	☐
안긴문장이 ‘명사절’임을 썼다.	☐

(2) 읽기의 점검과 조정



내공 쌓기 ①

61쪽 01 ④ 02 ④ 03 ④

01 ‘현중’은 글을 읽기 전에 ‘간송미술 36’, ‘澗松 全鑿弼’, ‘간송 전형필’ 세 권을 후보로 두고 책을 선정하고 있다. 우선 자신이 간송 미술관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간송 전형필’과 관련된 세 권의 책을 골랐다. 그리고 고른 후에 자신의 읽기 목적과 수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간송 전형필’을 선택하였다.

오답 풀이 ① ‘현중’의 말 중, ‘이 책은 ‘전형필’이 수집한 미술품들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전형필’의 생애는 잘 나타나 있지 않네.’라는 말에서 자신이 알고 싶었던 내용이 책의 내용으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②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조사해 오라는 선생님의 말에서 읽기 목적을 알 수 있고, ‘간송미술 36’은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다.

③ ‘澗松 全鑿弼’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현중’이 책을 읽기에 너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즉 ‘현중’은 책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⑤ ‘현중’의 말 중 ‘저번에 간송 미술관에 갔다가’의 부분을 참고하면 책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전형필의 생애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02 당시 ‘전형필’은 800만 평의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현재 시세로 약 6천억 원에 달했다. ‘전형필’의 1년 순수입은 당시 15만 원 정도였는데, 이는 현재 시세로는 약 450억 원이다.

오답 풀이 ① ‘일제 강점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전형필은 상복을 입은 채 대학 4학년을 마치고 1930년 3월 경성으로 돌아왔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③ ‘전형필의 부친은 다른 지주들에 비해 소작인들에게 비교적 후하게 분배했기 때문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 ‘조상 대대로 이루어 놓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라고 한 부분에서 ‘전형필’의 고민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공 쌓기 ②

63쪽 01 ⑤ 02 ⑤ 03 ②

01 ‘전형필’은 서화 전적을 지키려고 반도 여학교 인수와 교육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반도 여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고, 교육 사업을 하기에는 자신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훗날을 도모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너무나 급작스레 당한 일이라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도 열여섯 어린 나이에 선친을 여의어 그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민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던 외종형 월탄의 조언도 떠올랐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훗날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셨는데…….’를 통해 알 수 있다.

02 ‘오세창’의 표정이 복잡한 이유는 바로 뒤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 ‘오세창’은 세파에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전형필’이 큰 재산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걱정하고 있다.

03 ‘현중’은 읽기 과정에서 뜻을 모르는 단어(‘서화 전적’)를 발견하고,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내공 쌓기 ③

65쪽 01 ① 02 ⑤ 03 ① 04 조선의 자존심

01 ‘전형필’은 서화 전적을 지키려는 이유를 묻는 ‘오세창’에게 외숙의 가르침, ‘고희동’ 선생님과 외종 형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 논밭을 물려받으면서 생긴 경제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서화 전적을 이 땅에 남기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뜻 없이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들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02 ‘오세창’은 조선 땅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은 많지만 뜻을 갖고 모으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는데, ‘전형필’이 서화 전적이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말하자 만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세창’은 ‘전형필’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이유가 사익이 아닌 민족과 나라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전형필’은 ‘오세창’을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아 보려 한다는 결심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전형필’뿐만 아니라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다른 사람들이 ‘오세창’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것으로 보아, ‘오세창’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이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서화 전적과 골동품에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존심’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형필’이 생각하는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가 집약된 말은 ‘조선의 자존심’이다.



내공 쌓기 ④

67쪽

01 ④ 02 ③ 03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

01 '마에다'는 천학 매병이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말하며, 총독부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5천 원을 더 주겠다는 '신보'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마에다'가 '신보'가 제안한 가격에 만족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에다'의 웃음은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2 '전형필'이 천학 매병의 사진만 보고도 그것이 대단한 명품임을 알아본 것에서 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형필'이 '신보'에게 내일이라도 천학 매병의 실물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ㄷ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03 **서술형** 5에서 '현중'은 '천학 매병'의 값인 2만 원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60~61쪽(교과서 79쪽)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현중'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하기' 전략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현중'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내공 쌓기 ⑥

69쪽

01 ④ 02 준비성이 철저하다. 03 ①

01 '전형필'은 자신의 취향보다는 서화 골동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나타났을 때 놓친 적이 거의 없었다.

02 **서술형** '전형필'은 천학 매병의 사진을 보고 다시 만나기 어려운 명품 청자라고 판단하여 천학 매병을 사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그리고는 미리 박물관 공사 대금까지 모아 현금 가방을 준비해 두었다. '전형필'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천학 매병을 구매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거액의 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에서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전형필'이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현중'은 '전형필'의 생애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하기 위해 이 글을 읽게 되었다. 그래서 '현중'은

6에서 글을 읽는 목적을 떠올려가며 '전형필'에게서 본받을 점을 정리하였다.



내공 쌓기 ⑥

71쪽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1 '현중'은 독서 기록장에 이 글의 중심 내용, 이 글을 읽은 후 더 알고 싶어 찾아본 내용,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발표할 내용 등을 정리해 두었다. 여기에 글을 읽는 중에 생긴 궁금한 점은 정리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전형필'의 결심과 '전형필'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② '전형필'의 생애에서 본받을 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③ 발표할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였다.
⑤ 간송 미술관과 '전형필'이 지킨 문화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찾아본 내용을 정리하였다.

02 ①과 같이 글을 읽은 후 글의 내용을 표나 그림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다. 글을 읽은 후에는 읽은 내용을 되짚어 보는 활동을 주로 하는데, 표나 그림을 활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 외에도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03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이를 정리하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더 알아본 내용을 다른 독서의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04 '발표할 내용'에서 '현중'이 발표할 내용의 구성을 알 수 있다. '현중'은 '가운데' 부분에서 '전형필'이 젊은 시절에 했던 고민과 결심, '전형필'이 문화재를 지킨 대표적인 일화, '전형필'이 지킨 문화재들과 간송 미술관을 다루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은 ㄱ와 ㄷ이다.

오답 풀이 ㄴ. 역사적 인물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하기 위해 '전형필'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처음'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ㄷ. '전형필'의 생애에서 본받을 점, 즉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본받겠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내공 쌓기 ⑦

73쪽

01 ② 02 ② 03 ④

01 일반적으로 글이 자신의 읽기 수준에 적절한지 점검하는 활동은 읽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①, ④, ⑤는 읽는 중 단계에서, ③은 읽은 후 단계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02 '현중'은 '천학 매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03 '현중'은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고 있다. 이렇게 읽기를 점검하고 조정하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읽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④는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읽기 과정의 점검 및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볼 수 없다.

축집게 **사수** **예상 문제** 본문 74~77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④ **05** ②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06** 서화 전적과 골동품 **2단계 07** 왜놈들이 우리 서화 전적을 계속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이 땅에 남기고 싶습니다.
3단계 08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

09 ② **10** ① **11** 본받을 점 **12** ②

13 화가가 만족스러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림을 고쳐 그리며 노력한 시간을 의미한다. **14** ⑤

01 (다)에서 '전형필'이 '오세창'의 질문을 듣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지만, 이는 (다)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화 전적을 지키려는 이유에 대한 '오세창'의 물음과 '전형필'의 대답이 (다)의 중심 내용이다.

02 '오세창'이 '전형필'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전형필'의 의지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지 그와 대립하려는 것은 아니다.

03 (가)에 나타난 '오세창'의 혼계를 통해, 서화를 모으려면 재물과 안목뿐만 아니라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㉔은 '전형필'에게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물어봄으로써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전형필'의 의지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뿐이다. ㉔에서 '오세창'이 '전형필'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5 ㉔의 '전적'은 책을 의미한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6 '전형필'은 오상들에게 물려받은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 데 쓰기로 결심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썼다.	☐

2단계 07 '전형필'이 서화 전적을 지키기로 결심한 데에는 일제가 조선의 서화 전적을 계속 일본으로 반출하는 사회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평가 기준	확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게 썼다.	☐
(다)에서 찾아 한 문장으로 썼다.	☐

3단계 08 독자는 (마)에서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들이 '오세창'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세창'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을 짐작하고 있다. 즉,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9 이 글은 전기문이다. 전기문은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 언행이나 성품 등을 사실에 바탕하여 기록한 글로, 구체적인 인물의 일화를 통해 그 인물의 가치관이나 성격을 알 수 있다.

10 '전형필'은 '마에다'가 제시했던 2만 원에 천학 매병을 구입하였다. '신보'가 원하던 가격은 만 오천 원이었다.

11 서술형 '현중'은 천학 매병을 구입한 '전형필'의 일화를 통해 '전형필'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에게서 본받을 점을 정리하였다.

12 다빈치는 불가사의하지만 완벽한 구도로 화면을 구성하였고, 소묘를 포함해 그가 남긴 거의 모든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글에서 다빈치가 불가사의한 구도와 관련하여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3 서술형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치 있는 시간을 말한다.

14 엑스레이로 그림을 분석한 사례에 관한 뉴스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대단원 평가



- 01 ⑤ 02 ② 03 관형어로 문장에서 체언인 ‘옷’
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8 ③ 09 ‘그가 떠났다.’와 ‘우리는 알았
다.’로 나눌 수 있고,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10 ①
11 ② 12 ④ 13 ⑤ 14 홀문장. 홀문장
을 통해 긴박감과 속도감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하였다. 15 ① 16 ③ 17 ③ 18 읽
기 목적 19 ③ 20 ③ 21 ③ 22 그
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23 ③ 24 ⑤
25 ② 26 ①

01 주성분이란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①의 밑줄 친 부분은 주어, ②의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 ③의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보어이다. 반면 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용언 ‘떨어진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02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①, ③, ④, ⑤는 예를 들어 ‘사과를’, ‘학생을’, ‘축구를’, ‘숙제를’과 같은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이 되므로 목적어가 필요하다. 반면 ②에는 ‘의사가’와 같이 서술어 ‘되다’ 앞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보어가 필요하다.

03 서술형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보기>에서 ‘새’, ‘모든’, ‘주인공의’는 모두 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밑줄 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고, 체언 ‘옷’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 ㄱ의 ‘매우’는 용언 ‘빠르구나’를, ㄴ의 ‘무척’은 다른 부사어 ‘높이’를, ㄷ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ㄹ의 ‘정말’은 관형어 ‘예쁜’을 꾸며 준다. ㄴ의 ‘절대’는 용언 ‘아니다’를 꾸며 준다.

[참고 자료] 부사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말

부사	㉠ 과연 훌륭하구나.
체언+부사격 조사 (‘으로’, ‘에서’ 등)	㉡ 영화관에서 만나자.
부사절	㉢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05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속 성분이란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이에 속한다. ②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06 ㉠, ㉡,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에 속하고, ㉣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에 속한다. ㉤은 서술어로 주성분에 속한다.

07 ㄱ은 ‘독립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고, 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이때 각각의 홑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08 둘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을 이어진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이어진문장은 두 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③은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①, ②, ④, 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그가 오다.’와 ‘우리는 출발할 것이다.’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비가 오다.’와 ‘내가 마중을 꼭 나가다.’가 양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선물을 사다.’와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았다.’가 목적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눈이 많이 내리다.’와 ‘버스가 다니지 못한다.’가 원인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9 서술형 이 문장은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평가 기준	확인
제시된 문장을 ‘그가 떠났다.’와 ‘우리는 알았다.’로 나누어 썼다.	☐
제시된 문장이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0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①은 ‘눈동자가 맑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사람들이(주어) + 휴식을(목적어) + 원한다(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③ ‘친구가 오다.’를 명사절로 안은 문장이다.

④ ‘언니가 만든’을 관형절로 안은 문장이다.

⑤ ‘머리카락이 휘날리게’를 부사절로 안은 문장이다.

11 ㄱ에서는 단어인 ‘슬며시’가 부사어로 쓰였다. ㄴ의 문장은 ‘동생이 다가왔다.’와 ‘소리도 없다.’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문장인 ‘소리도 없다’가 부사어로 쓰였다. 이처럼 ㄴ은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부사어로 안고 있으므로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12 ‘장미와 함께하면 사랑이 싹틔웁니다.’는 ‘장미와 함께하다.’와 ‘사랑이 싹틔웁니다.’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겹문장이다. 그리고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3 ⑤는 문장 ‘하늘을 수놓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절 ‘하늘을 수놓은’을 안고 있다. ‘하늘을 수놓은’은 체언 ‘나비’를 꾸며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② ‘나비가 날아오르다.’와 ‘감동이 피어나요.’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문장 ‘눈이 부시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 ‘눈이 부시게’를 안고 있는 문장이다. ‘눈이 부시게’는 서술어 ‘아름다워요’를 꾸며 주고 있다. 즉,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④ ‘나비들은 춤을 추다.’와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가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즉,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4 서술형 자신의 표현 의도에 따라 홀문장 또는 겹문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보기>는 홀문장을 주로 사용했는데, 홀문장을 사용하면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홀문장을 통해 긴박감과 속도감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하려 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5 ㉠은 부속 성분인 부사어이다. 보어는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 경우에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16 ㉡는 여러 문장을 지나치게 합쳐 겹문장으로 나타낸 부분으로, 이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여러 문장으로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이때 ㉡를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간대에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17 ‘전형필’의 아버지는 ‘전형필’에게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였다. 하지만 ‘전형필’은 교육 사업을 하는 대신에 서화와 골동품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오세창’을 찾아갔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전형필’은 자극히 당연한 걸 묻는 ‘오세창’의 의도를 궁금해하며 잠시 혼란스러워하였다.
 ② (가)에서 ‘전형필’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남긴 논밭을 돌아보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④ (나)에서 ‘전형필’은 자신이 서화와 골동품에 문외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다)에서 재작년 여름에 ‘전형필’이 ‘오세창’에게 우리나라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서술형 독자는 ‘전형필’의 생애를 자세히 알아보고 ‘전형필’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하기 위한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선택하였다.

19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부딪치는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화 전적’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봐야 한다.

20 ㄱ은 ‘전형필’의 외숙이, ㄴ은 ‘전형필’의 외종 형님이, ㄷ은 ‘고희동’이 ‘전형필’에게 한 말이다. ㄷ의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21 ‘전형필’은 ‘신보’를 통해 천학 매병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총독부에서 천학 매병을 만 원에 사려고 했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22 서술형 (다)에서 전형필은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23 <보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천학 매병’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정보이다. 이 자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보물 중의 보물”이라는 ‘천학 매병’은 무엇일까?이다.

24 ‘전형필’이 ‘마에다’와 ‘신보’의 흥정을 더 지켜보지 않은 이유는 (라)에 제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마에다’가 흥정을 하다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 더 이상 흥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마에다’에게 사정을 해야 하고, 잘못했다가는 천학 매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 ‘전형필’은 천학 매병의 값인 2만 원을 미리 현금으로 마련해 둘 정도로 준비성이 철저하고(ㄱ), 사진만 보고도 천학 매병의 가치를 알아볼 정도로 안목이 있다(ㄷ).

26 ‘완만하다’는 ‘경사가 급하지 않다.’를 뜻한다.

3.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

(1) 같은 화제 다른 글

제재 ① ㉠ 소금 없인 못 살아

내공 쌓기 ①

89쪽 01 ⑤ 02 ④ 03 생명 04 ④

01 이 글은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글쓴이가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금을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는 소금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가운데 1-①'에서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가 염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분자들의 결정체'라며 소금의 화학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처음-①'에서 '사람들은 조그만 알갱이에 불과한 소금을 왜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소금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④ '가운데 1-①~②'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이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땀과 오줌으로 배출하게 한다는 예를 들어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02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던 때에는 고기를 먹으며 쉽게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농경 사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염분 섭취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곡식에는 고기에 비해 염분이 적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냥을 시작하면서 소금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처음-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가운데 1-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가운데 2-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가운데 1-③'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3 서술형 글쓴이는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04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혈액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도 하고(ㄷ),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게 하기도 한다(ㄴ).

오답 풀이 ㄱ. '가운데 1-②'에서 소금을 아끼기 위해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해 온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땀과 오줌으로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한다고 하였다.

ㄷ. '가운데 1-①'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온들이 갈증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공 쌓기 ②

91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1 소금에 절인 생선(굴비나 간고등어)이나 소금에 절인 고기를 혼제하는 것은 소금을 이용하여 보존 기간을 늘린 것이다. 또한 온대 지방 사람들은 채소를 염장하여 이것을 겨울까지 먹으며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였는데, 이 역시 소금을 이용하여 보존 기간을 늘린 것이다.

02 글쓴이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고, 식품의 신선함을 유지해 준다고 설명하며 소금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차나 커피와 같은 몇몇 기호 식품이나 과일에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03 '끝-①'에서는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 음식의 맛을 살리며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 준다는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소금의 종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③ 소금의 작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반론의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았다.

④ 소금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⑤ 소금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은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설명하는 글의 구조

처음	• 설명할 대상을 제시함. • 글을 쓴 동기를 밝힘. • 읽는 이의 흥미를 유발함.
가운데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끝	•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글을 마무리함. • 앞으로의 과제나 읽는 이에 대한 당부를 제시함.

04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기 때문에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제재 ② ㉡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

내공 쌓기 ①

93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1 세포 생물학자들은 사람들의 체내 수분이 부족한 이유는 사람들이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는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몸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뉜 소금은 쉽게 물과 결합한다.

③ 소금은 조직 속의 수분을 빼앗아 조직 속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는 부패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금에 절인 육류나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④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3.4그램 정도인데 많은 사람이 필요량보다 몇 배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

⑤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건강 문제의 대부분은 체내의 수분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한다.

02 글쓴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그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03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비타민, 미량 영양소, 효소, 단백질 등이 세포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체세포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③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좁아져 체세포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혈압이 높아져 순환 장애가 생기며, 심장 또한 약해져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④ 소금이 체세포로부터 물을 빼앗으면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⑤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비타민, 미량 영양소, 효소,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세포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04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서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진다. 그 때문에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위험하다.

내용 보기 2

95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④

01 글쓴이는 글의 결론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내용 기르기 주장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서론에서 글을 쓰게 된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히고, 본문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이 글의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02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둔감해지고 그 결과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 그리고 짠맛을 먹었을 때 얻게 되는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이로 인해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03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소금을 많이 섭취할수록 갈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론 2-3'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연

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4 짠 음식을 먹으면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나게 되고, 아이들은 갈증을 달래려고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를 찾는다.

예상 문제

본문 96~99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④ 05 ① 06 ③
07 물 도둑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③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3 꼭 필요한 2단계 14 소금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도를(주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다. 3단계 15 ㉔: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냄. ㉕: 그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함.

01 (다)에서 곡식보다 고기에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염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고기의 종류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나)에서 소금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우리 몸의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② (마)에서 소금의 짠맛이 음식과 잘 어우러지면 그 맛을 더욱 좋게 해 준다고 설명하면서 김치, 생선, 고기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⑤ (다)에서 곡식에는 고기보다 염분이 지극히 적게 들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소금 섭취가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02 <보기>는 소금으로 인해 발생한 간디의 무저항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소금이 필수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의 (가)에서도 인류사에서 소금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03 첫 문단은 보통 글의 화제를 소개하고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가)는 글의 첫 문단으로서 소금이 인류의 문명 발달에 영향을 끼쳤고, 소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화제가 소금이고 앞으로 소금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내용 기르기 글의 '서술 방식', '설명 방식', '서술상 특징', '내용 전개 방식' 등을 묻는 문제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활용한 구체적인 글쓰기 방식을 파악해 보는 문제야. 문단 혹은 문장 간 관계를 고려하여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4 (라)에서 소금이 지닌 짠맛의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하였고, (마)에서는 이러한 짠맛이 음식 본연의 맛과 잘 어우러져 그 맛을 더욱 좋게 해 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김치, 생선 구이, 고기구이를 들고 있다.

05 글쓴이는 (가)에서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여러 가지 이유 중 과다한 소금 섭취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면서, 과다하게 섭취한 소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고 하였다.

06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건강 문제는 대부분 체내의 수분이 부족한 탓이고, 이는 소금 과다 섭취가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세포 생물학자들은 <보기>의 학생에게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07 서술형 글쓴이는 (나)에서 소금이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과학적 사실을, ‘물 도둑’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08 ㉠은 소금에 절인 육류나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로, 소금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 ㉢, ㉣은 소금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오답 풀이 ㉠, ㉢, ㉣, ㉤ 과다한 소금 섭취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수분을 빼앗아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 신진대사 능력을 떨어뜨리며(㉣) 혈관을 좁게 해서 체세포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글쓴이는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09 (가)~(다)의 글쓴이는 소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라)~(아)의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 ㉢ (가)~(아)는 모두 소금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가)~(다)는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금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글이다. (라)~(사)는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과다한 소금 섭취가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아)는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소금을 적게 먹자고 알리는 공익 광고이다.

④ (나)에서는 식품을 보존하게 해 주는 소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생선, 고기, 채소를 예로 들고 있다.

⑤ (라)에서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과학적 사실을 제시하여, 과다한 소금 섭취가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0 (가)~(다)는 소금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하는 글, (라)~(사)는 소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주장하는 글, (아)는 소금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광고이다. 따라서 (가)~(아)는 소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른 여러 글을 읽으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대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닐 수 있다.

내용 기르기

동일한 화제에 대해 글을 쓰더라도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 될 수 있어, 또는 관점이 같더라도 형식을 다르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동일한 화제에 대해 관점이나 형식이 서로 다른 여러 글을 읽으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11 (가)에서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돕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소금이 음식 속 미생물의 활동을 돕는다는 ‘채민’의 말은 옳지 않다.

12 글쓴이는 사람들이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다한 소금 섭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금의 과다한 섭취가 허를 둔감하게 만들고, 이것이 음식 중독과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3** (가)~(다)는 소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 음식의 맛을 살리며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 준다는 근거를 들어, 소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소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2단계 **14** (라)~(사)에는 소금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바)에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관찰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소금이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화제에 관한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도를 높였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3단계 **15** (라)~(사)와 (아)는 모두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라)~(사)는 글로만 내용을 전달한 데 비해, (아)는 그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해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소금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에 그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2) 보고하는 글쓰기


내공 쌓기 ①

103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1 첫 번째 칸에 제시된 공모전 홍보 포스터만 보고는 공모전 당선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가 공모전의 주제라고 하였다.

②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응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제1회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공모전이 처음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02 만화의 세 번째 칸에서 '효주'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보고하는 글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육하원칙에 맞게 적은 글은 기사문이다.

②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느낌이나 체험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은 수필이다.

③ 어떠한 행사를 널리 알리거나 참가해 줄 것을 전하기 위해 쓰는 글은 안내문이다.

⑤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어서 쓰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03 '효주네 모듬'은 공모전 홍보 포스터를 보고 공모전에 응모하기로 하고, 공모 주제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04 만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지호'가 어떤 관광지를 소개하면 좋을지 물어보자, '효주'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어떤 관광지를 소개할지 정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어떤 관광지를 소개할지 정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공 쌓기 ②

105쪽 01 ③ 02 ① 03 ①

01 만화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서 '효주네 모듬'은 누가 어떤 조사 방법을 맡을지를 정했다. 그중 '효주'는 '민아'와 함께 현장 조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지호'는 방송 및 인터넷 자료 조사, '현우'는 문헌 조사, '민아'와 '효주'는 현장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료 정리 및 보고하는 글 쓰기는 모듬 구성원 전체가 하기로 하였다.

02 '효주네 모듬'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로 '두류 공원'을 추천한 사람은 18명, '팔공산'을 추천한 사람은 24명으로, 각 관광지를 추천한 학생의 수는 서로 다르다.

오답 풀이 ②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이 33명의 추천을 받아 1위를 하였다.

③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대구 근대 문화 골목 - 팔공산 - 두류 공원 - 서문 시장'의 순서로 추천한 학생이 많았다.

④, ⑤ '효주네 모듬'은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03 '지호'와 '민아'의 제안에 대해 '현우'와 '효주'가 한 말을 살펴보면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쓰기 윤리를 알 수 있다. 글을 쓸 때에는 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아야 하고,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하지 않으며, 필요한 자료는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쓰기 윤리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 자신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쓰기 윤리에 저촉되는 사례	•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복사해서 그대로 자신의 글에 붙여 넣는 행위 • 글을 대필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을 구입하여 제출하는 행위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 인용한 자료의 출처 밝히기 • 자발적인 윤리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글 쓰기


내공 쌓기 ③

107쪽 01 ⑤ 02 ② 03 ③: 인터넷, ⑥: 삼일 만세 운동 길

01 <자료 5>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상화 고택'의 실제 모습은 <자료 4>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료 5>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상돈 고택'이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자료 5>에 '계산 성당'의 사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자료 1>은 방송 매체(텔레비전 뉴스), <자료 2>는 인쇄 매체(책), <자료 3>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③ <자료 1>은 <자료 2>의 '삼일 만세 운동 길', <자료 3>의 '계산 성당', <자료 4>의 '삼일 만세 운동 길'과 '서상돈 고택', <자료 5>의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④ <자료 2>는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료 4>에서 '삼일 만세 운동 길'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02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입장료에 대한 내용은 <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

③ <자료 1>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은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살아 있는 대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④ <자료 1>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가면 '청라 언덕'의 선교사 주택, '삼일 만세 운동 길', '계산 성당',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 등의 유적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자료 1>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은 한국 전쟁 당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였다.

03 서술형 <자료 2>는 제일 교회 담장 옆 오르막길에 있는 계단인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해 소개한 문헌 자료이고, <자료 3>은 '계산 성당'의 건축상 특징에 대해 설명한 인터넷 자료이다.

평가 기준	확인
④의 답으로 '인터넷'이라고 썼다.	☐
⑥의 답으로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썼다.	☐

내공 쌓기 ④

109쪽

01 <자료 4>의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직접 찍은 사진
02 ④ **03** ②

01 서술형 <자료 2>에는 '삼일 만세 운동 길'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지만 책의 내용만으로는 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이때 <자료 4>의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한다는 내용을 썼다.	☐

02 <자료 3>은 내용 면에서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보고서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쓰기 윤리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03 개요의 '가운데' 부분에서 소개할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 중에 '청라 언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자료 4>에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모습을 찍은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③ <자료 5>에 '이상화 고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④ <자료 2>에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⑤ <자료 3>에 '계산 성당'의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내공 쌓기 ⑤

111쪽

01 ③ **02** ⑤ **03** 문화 해설사의 설명과 유적지의 사진 **04** ②

01 '조사 내용'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은 한국 전쟁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크지 않아서 오래된 건축물들을 비롯한 근대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이

곳이 한국 전쟁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크지 않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조사 내용'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은 대구 도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그림을 살펴보면 이곳의 구체적인 위치도 알 수 있다.

② 설문 조사 결과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추천한 학생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④ '조사 내용'에서 한국 전쟁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 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대구 관광지에는 '대구 근대 문화 골목' 이외에 '팔공산', '두류 공원', '서문 시장'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어떤 대상을 조사한 후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처음'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조사의 목적, 동기,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조사 소감은 '처음' 부분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보고하는 글의 '끝' 부분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서술형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 '효주네 모듬'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유적지의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글을 작성할 때 그림과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면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①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약도를 그린 보조 자료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각 유적지의 위치와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내공 쌓기 ⑥

113쪽

01 ④ **02** ④ **03** ①: 대구 근대 문화 골목, ②: 사진 **04** ⑤

01 보고하는 글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남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활용하면 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02 '계산 성당'은 경상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나서 무너졌고 1902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 지어졌다.

오답 풀이 ① '청라 언덕'에 위치한 '스윗즈 주택', '챔니스 주택', '블레어 주택'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짓고 자신들의 집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② '삼일 만세 운동 길'은 일제 강점기에 만세 운동 집결 장소로 향하던 학생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지름길이자 비밀 통로였다.

③ '이상화 고택'의 안방에는 시인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고 있고, 마루에는 시인의 흉상이, 마당에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⑤ '서상돈' 선생은 일제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국민들이 돈을 모아 나라의 빛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서상돈 고택'은 이러한 '서상돈' 선생의 집을 복원한 것으로, '이상화 고택'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03 서술형 이 보고하는 글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곳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청라 언덕', '삼일 만세 운동 길', '계산 성당',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유적지를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유적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이라는 내용을 썼다.	☐
㉡에 '사진'이라는 내용을 썼다.	☐

04 추가할 자료는 이 글에 제시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④에서 '이상화 고택'의 마루와 마당에 '이상화' 시인의 흉상과 시비가 있다고 했으므로, 이것을 찍은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내공 쌓기 7

115쪽 01 ③ 02 ④ 03 쓰기 윤리 04 ③

01 보고하는 글의 '끝' 부분에서는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요약하고 소감을 제시한다. 또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

오답 풀이 ㄱ, ㄴ, ㄷ. 조사 동기,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은 보고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 들어갈 요소이다.

02 '효주네 모듬'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건물과 풍경, 역사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서술형 보고하는 글의 내용 및 표현뿐만 아니라 보고하는 글을 쓸 때의 윤리적인 태도 역시 글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제시된 물음들은 쓰기 윤리를 지켜 보고서를 썼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들이다.

04 ㉠에서 '효주네 모듬'이 『케이비에스(KBS) 뉴스』를 활용하였으므로 동영상에 참고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영상에 관광객들을 취재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 누리집(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② 2017년 6월 21일에 방송한 『케이비에스(KBS) 뉴스』를 참고하였다.
④, ⑤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발간한 책인 『근대 로(路)의 여행』을 참고하였다.

종합예상 문제

본문 116~119쪽

- 01 ② 02 ① 03 ㉠: 근대 문화 골목, ㉡: 현장 조사
04 ⑤ 05 ② 06 ④ 07 ③ 08 ⑤ 09 ⑤
10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11 ③ 12 ⑤
13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4 ㉠: 조사 목적, 조사 동기,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2단계** 15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단계** 16 ㉡,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다.

01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해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보고하는 글은 전문가가 쓰기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내용을 실험, 관찰, 조사하여 보고하는 글을 쓸 수 있다.

02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 방법 및 역할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획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03 서술형 '효주네 모듬'은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지역인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민아'는 '효주'와 함께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어 오겠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에 '근대 문화 골목'이라고 썼다.	☐
㉡에 '현장 조사'라고 썼다.	☐

04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조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꾸미서는 안 된다. '지호'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꾸자고 말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⑤이다.

05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의 일부만 인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효정'은 조사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므로 쓰기 윤리를 잘 지킨 사람이다.

오답 풀이 ① 조사 대상 중 일부만 조사하고 결과를 추측해서 쓰는 것은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사전에 나온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쓰고, 출처를 사전으로 쓰는 것은 쓰지 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④ 조사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쓰기 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⑤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생략하는 것은 쓰기 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내용 기르기

쓰기 윤리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문제야. 여러 친구들의 행동에서 어떤 부분이 쓰기 윤리에 어긋난 것인지 파악해 보고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두면 좋아.

06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때는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서 글의 구성과 내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때 보고하는 글의 작성자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어도 출처가 분명하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

07 <자료 3>에서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은 설명하였지만 건축 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08 보고하는 글에 사진이 지나치게 많으면 혼란을 줄 수도 있으나 적절한 사진 자료는 글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사진 자료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이상화 고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상화 고택'과 관련한 사진을 넣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자료 1>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 보도 자료이므로, 출처가 분명하여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이다. 본격적으로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 전반을 소개할 수 있다.

③ <자료 2>의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삼일 만세 운동 길'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자료 4>의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찍은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자료 5>에서 '이상화 고택'에 대해 조사한 자료는 '이상화 고택'을 찍은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09 <자료 2>에서 '삼일 만세 운동 길'은 삼일 운동 당시 만세 운동 집결 장소로 향하던 학생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귀가할 때 이 길을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10 서술형 <자료 3>은 '계산 성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 우리 지역 관광지를 소개한다는 보고하는 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자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썼다.	☐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썼다.	☐

11 이 글의 조사자들은 다양한 매체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12 이 글의 조사자들은 소개한 유적지 외에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있는 유적지를 더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앞으로도 근대 문화 골목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13 도표나 사진, 그림 등의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매체 자료를 빠짐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 기르기

보고하는 글을 평가할 때는 보고하는 글의 내용 및 표현의 측면, 쓰기 윤리의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보고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해. 내용 및 표현 측면에서는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는지,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보고하는 글의 구성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했는지,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해. 또 쓰기 윤리 측면에서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조사한 내용이나 결과 등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4** 보고하는 글은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조사 목적, 동기, 기간, 대상, 방법 등이 들어가고, '가운데'에는 조사, 실험, 관찰 내용 및 결과가 제시된다. '끝'에는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의 요약과 소감, 자료의 출처가 제시된다.

평가 기준	확인
③에 '조사 목적, 조사 동기,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이라고 썼다.	☐
⑥에 '자료 출처'라고 썼다.	☐

2단계 **15**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을 표절하는 행위는 쓰기 윤리에 어긋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썼다.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썼다.	☐

3단계 **16** 조사 대상으로 '근대 문화 골목'을 선택한 까닭이 나타나 있는 '조사 동기' 부분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보여 주면, 독자가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을 찾아 썼다.	☐
<보기>에 있는 도표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으로 썼다.	☐

대단원 평가



- 01 ② 02 ④ 03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
04 ① 05 ② 06 ② 07 ㉠: 긍정적, ㉡: 부정적
08 ② 09 ⑤ 10 ④ 11 ④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③
17 ④ 18 각자 맡을 일에 대해 역할을 나눈다. 역할을 분담한다. 등

01 (가)에 사람들이 소금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물, 식량 등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소금이 이동하는 중심지에는 교역로가 발달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물, 식량과 더불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도시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02 (나)에서 옛날에도 바닷가에서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금을 채취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바닷가에서도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은 (나)~(다)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다)를 통해 사람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먹어야 하는 소금의 양은 1년에 1킬로그램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던 때에는 고기에서 쉽게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사람들은 소금이 지닌 짭맛의 매력 때문에 필요량 이상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염분 섭취가 어려워졌는데 이는 곡식에는 염분이 적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그래서 냉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던 옛날에는 소금이 식품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평가 기준	확인
소금이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준다는 내용이 드러나게 썼다.	☐
글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썼다.	☐

04 (가)에서는 즉석식품과 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들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중심 내용으로는 '과다한 소금 섭취로 건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적절하다.

05 (가)에서 많은 아이들이 건강 문제를 겪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를 겪었던 글쓴이의 경험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과다한 소금 섭취로 인해 건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 ③ (다)에서 소금은 몸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물과 쉽게 결합하여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아 간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소금을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는 '물 도둑'이라고 빗대어 표현하였다.
⑤ (나)에서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한 탓이며 이는 음식을 너무 짜게 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06 이 글은 소금 과다 섭취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들며 소금 섭취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글이고, 제시된 광고는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들어 소금을 적게 먹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 광고이다.

내공 기르기

이 광고는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처럼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정보를 담고 있어, 하지만 이 광고는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와는 형식이 달라,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그림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고, 소금 섭취를 줄이자는 주장을 짧은 글과 핵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여 주고 있어, 이처럼 화제가 동일하더라도 관점이나 형식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07 서술형 (가)~(나)는 소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소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마)는 소금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소금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긍정적'이라고 썼다.	☐
㉡에 '부정적'이라고 썼다.	☐

08 (가)에서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훈제하는 것은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을 뿐, 이 방식이 고기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생선이나 고기 등을 소금에 절이면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다.
③ 온대 지방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 채소를 많이 섭취할 수 없게 되면 극심한 비타민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소를 염장해서 겨울철까지 먹으며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였다.
④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겨울철에도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줄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타당하다.
⑤ 굴비나 간고등어는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음식으로, 소금에 생선을 절이는 방법을 통해 내륙 지방 사람들도 생선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09 아이들이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를 찾는 것은 소금의 짭맛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짜게 먹어서 생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10 ‘효주네 모듬’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개최되는 ‘제1회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에게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대구 근대 문화 골목’으로 정하였다.

오답 풀이 ㄱ. ‘제1회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에 공모하기로 하였으므로 ‘효주네 모듬’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임을 알 수 있다.

ㄷ. 공모전의 주제와 ‘효주네 모듬’이 한 설문 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이 보고서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11 (나)의 첫 장면에서 소개할 관광지가 정해지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본다고 한 사람은 ‘지호’이다. 도서부원인 ‘현우’는 책에서 자료를 찾기로 하였고, ‘효주’와 ‘민아’는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어 오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것은 모듬 구성원이 다 함께하기로 하였다.

12 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쓰기 윤리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등의 자료는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13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먼저 주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계획하기) 자료를 수집하고(자료 수집하기) 정리한다(자료 정리하기). 그리고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다(보고하는 글쓰기). 그리고 나서 글을 내용 및 표현의 측면, 쓰기 윤리의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한다(평가하기).

내공 기르기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 자료 수집하기 - 자료 정리하기 - 보고하는 글 쓰기 - 평가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보기>에서 ㄱ은 자료 정리하기, ㄴ은 평가하기, ㄷ은 자료 수집하기, ㄹ은 보고하는 글 쓰기, ㄴ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순서를 배열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14 이 글에서는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을 도표화하여 설문 조사 결과가 한 눈에 파악되도록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끝 부분에 참고 자료 출처를 제시하여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② 텔레비전 뉴스,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료 조사,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은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③ ‘처음’ 부분에 조사 목적, 조사 동기,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을 쓰고, ‘가운데’ 부분에 조사 내용을 쓰고, ‘끝’ 부분에 소감과 참고 자료 출처를 작성하는 등 짜임새 있게 내용을 조직하였다.

④ ‘청라 언덕’과 ‘삼일 만세 운동 길’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15 이 글의 ‘처음’에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를 설문 조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추천한 이유에 관한 학생 인터뷰는 제시되지 않았다.

16 ‘청라 언덕’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공원(㉠)이다. ‘청라’라는 이름은 ‘푸른 담쟁이’라는 뜻으로, 과거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 근방에 담쟁이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스위트 주택, 챔니스 주택, 블레어 주택이 있다(㉢).

오답 풀이 ㉠ ‘청라 언덕’에 위치한 주택의 이름, 용도 등은 나타나 있지만 주택들의 경제적 가치는 알 수 없다.

㉡ ‘청라 언덕’에 위치한 주택 세 채는 이미 각각 선교 박물관, 의료 박물관, 교육·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7 제시된 글쓰기 계획서에서는 조사 방법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비교하는 면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18 서술형 여러 명이 함께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경우에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역할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좋은 보고서를 완성하기 어렵다.

평가 기준	확인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4. 함께 살아가는 우리

(1) 사회를 비추는 문학



내공 쌓기 ①

131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①

01 이 글의 갈래는 '희곡'으로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해 쓰인 연극의 대본이다(ㄱ). 희곡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주로 다루며(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주된 수단으로 하여 내용이 전개된다(ㄷ). 또한 모든 사건이 관객의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으로 표현되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오답 풀이 ㄴ.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지만, 희곡에는 서술자가 없다. 희곡은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참고 자료] 희곡의 특성

-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글이다.
-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
- 사건이 현재형으로 기록된다.
-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된다.
- 인물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다룬다.

02 '전개 - ①'에서는 어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안유식'은 다짜고짜 '강태국'의 떡살을 잡으며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강태국'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한다.

오답 풀이 ① '안유식'은 '강태국'에게 "당신 말야, 세탁!", "우리 어머니 옷 찾아내!"라고 말하며 떡살을 잡는 등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

②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습격한 '안 패거리'와 이에 대항하는 '세탁소 사람들' 사이의 외적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④ '서옥화'는 "할매가 돈을 세탁소에 두었다고 그랬잖아!"라고 말하며 안 패거리가 세탁소를 뒤지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장민숙'은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라며 세탁소를 뒤지는 안 패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3 ㉠에서 '허영분'이 스카프를 입에 두른 까닭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변이 묻은 옷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04 "아가씨는 저쪽을 뒤져요."라는 '허영분'의 말에 '안미숙'은 '허영분'의 말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찾겠다고 말한다. 또 '안경우'도 '안미숙'이나 '허영분'이 먼저 옷을 찾을까 봐 경계하며 묻는다. 이로 보아 안 패거리는 서로를 의심하며 어머니의 옷을 먼저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지시문은 '의심하여'가 적절하다.



내공 쌓기 ②

133쪽

01 ④ **02** ⑤ **03** 투병 중인 어머니가 '세탁'이라는 말을 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세탁소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찾기 위해 세탁소를 습격한 것이다. **04** ⑤

01 안 패거리는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이에 '강태국'을 비롯한 세탁소 사람들은 세탁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안 패거리에게 대항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옥화'는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장민숙'은 '염소팔'에게 안 패거리가 더 이상 옷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③ 안 패거리는 자신들에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우고 있을 뿐, 어머니의 부양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강태국'은 안 패거리가 어지럽혀 놓은 옷들을 주워 올리고 있을 뿐, '장민숙'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내공 기르기

이 글은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모습과 세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

02 이 글에는 어머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안 패거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저버린 채, 물질적인 가치만 밝히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내다가 무슨 정신이 났는지 '세탁'이라는 말을 했음을 '안유식'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안 패거리는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단서가 세탁소에 있다고 생각하여 세탁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세탁소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은 세탁소를 난장판으로 만든 '허영분'이 자신을 말리려는 '염소팔'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건드리기만 하면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듣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②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음을 이르는 말.

③ 사상누각(沙上樓閣):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건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내공 쌓기 ㉓

135쪽 01 ㉔ 02 ㉔ 03 ㉔ 04 “엄마 간대?”

01 ‘허영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고상한 척하며 ‘장민숙’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한 것은 ‘강태국’과 ‘장민숙’의 협조를 받아서 어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이다.

02 ㉔에서 할머니의 자식들, 즉 안 패거리의 어머니에 대해 간병인보다도 잘 모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안 패거리가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조차 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옥화’는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할머니가 언제 쓰러졌는지 자식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할머니와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② ‘서옥화’는 “돈이 요사를 떠는 것이냐, 사람이 본디 요물이나. 통 모르겠네…….”라고 말하며 안 패거리를 비판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안 패거리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의사 전화에도 재산만을 신경 쓰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안 패거리가 가족들의 일, 특히 어머니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03 ㉔에서 ‘안경우’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 서둘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안경우’가 실질적인 이득(재산)만큼이나 체면도 중시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대사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체면을 따지지 않는 성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는 탐욕에 눈이 먼 안 패거리를 비판하는 말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드러내는 부분이다.

② ㉔는 ‘염소팔’도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이 있음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부분이다.

③ ㉔에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에도 재산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안유식’은 어머니의 임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㉔에서 ‘안유식’은 명함을 보이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강태국’을 협박하고 있다.

04 서술형 ‘가다’는 사람이 죽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안미숙’은 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서도 슬픈 기색 없이 “엄마 간대?”라고 물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내공 쌓기 ㉔

137쪽 01 ㉔ 02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 프로를 주겠소!” 03 ㉔ 04 ㉔

01 ‘안미숙’이 “그냥 세탁소를 통째로 사!”라고 말한 것은 ‘안

유식’이 어머니의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자신에게 분배될 몫이 적어질 것을 우려하여 한 말이다. 따라서 ‘강태국’이 오아시스 세탁소를 운영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서옥화’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 세탁소네요.”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재산 혹은 재산에 대한 단서가 세탁소에 있다고 믿고 있다.

②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안유식’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강태국’ 뿐이다.

③ ‘안유식’은 세탁소 사람들이 재산을 찾아 빼돌릴까 봐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50 프로를 주겠다고 선언한다.

④ 안 패거리는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여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중증결음으로 퇴장하고 있다.

02 서술형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 프로를 주겠소!”라는 안유식의 제안 후 ‘강태국’을 제외한 세탁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 ‘강태국’을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로 침입하게 되고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03 ‘강태국’이 아내인 ‘장민숙’에게 분노한 까닭은 ‘안유식’이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50 프로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아내마저 돈에 관심을 보이고,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 없으며 자신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안 패거리가 ‘강태국’과 ‘장민숙’의 사이를 이간질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귀신에 홀린 듯이 남은 세 사람. 황혼의 세탁소. 참담하게 세탁소를 바라보는 강태국. 엉거주춤하니 서서 은근슬쩍 옷을 뒤져 보는 염소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장민숙.’에서 알 수 있다.

② ‘참담하게 세탁소를 바라보는 강태국’에서 알 수 있다.

③ ‘장민숙’의 대사 “(처음 보는 얼굴로)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에서 알 수 있다.

⑤ ‘다림질대를 밝히는 백열전구 아래 강태국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열심히 김을 뿜어 대며 다림질을 하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04 ‘안유식’은 자신의 제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허영분’의 말에 그러다 재산을 찾은 사람이 몽땅 가지고 가면 어찌냐고 응수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내공 쌓기 ㉕

139쪽 01 ㉔ 02 ㉔ 03 잡기장 04 ㉔

01 ‘절정 - 1’에서 ‘안경우’는 동생인 ‘안미숙’에게 “정말 김순녀 맞아?”라고 어머니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어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ㄱ), ‘강대영’은 엄마 ‘장민숙’에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거에 왜 나까지 끌어들여. 진짜 짜증 나!”라고 하며 자신까지 할머니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짜증을 내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엄니, 내는 이자부터 도둑놈입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염소팔’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누구든 찾지만 해라. 내가 쪽쪽 다 빨아먹어 줄 테니. 서옥화 팔자 한번 바꾸어 보드라고”라는 대사를 통해 ‘서옥화’도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옥화’가 그저 누가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세탁소에 잠입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에서 ‘강태국’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돈만 좇는 부조리한 세태 속에서도 순수하게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 또한 ‘강태국’은 “인간 강태국이냐 ~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짓인가?”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바른 가치를 지키며 사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03 서술형 ‘잡기장’은 세탁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적힌 아버지의 기록장이다. 잡기장을 보며 ‘강태국’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04 ‘전등 불빛에 드러나는 옷들이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인다.’, ‘불빛에 춤을 추는 옷들, 이리저리 집어던져져 날아다니는 옷들. 도깨비 옷 파티.’는 사람들이 옷을 뒤지느라 옷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할머니의 혼령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내공 쌓기 ⑥

141쪽 01 ④ 02 ④ 03 ⑤ 04 도둑행이

01 아버지의 잡기장에서 할머니가 맡긴 세탁물에 대한 내용을 찾은 ‘강태국’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숨어 있음을 눈치채고, 일부러 자신은 이만 물러가야겠다고 말한다.

02 ‘반짝이는 불빛들의 대이동’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세탁소가 어두워진 틈을 타 다급하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03 ‘방백’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객에게는 들리나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이다. ㉠~㉣에는 방백이 적절하고, ㉤에는 ‘염소팔’에게 하는 말이므로, ‘뭔가 느끼고’와 같은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대사의 종류

대화	두 사람 이상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독백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말
방백	관객에게는 들리나 무대 위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

04 서술형 ‘도둑행이’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몰래 세탁소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물질에 현혹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잊고, 욕망만을 좇는 모습으로 ‘강태국’의 말처럼 ‘도둑행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공 쌓기 ⑦

143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1 물질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강태국’과 인간의 도리보다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외적 갈등이 이 글의 주된 갈등으로 드러난다.

02 안 패거리는 옷 보따리를 ‘강태국’에게서 빼앗으려는 그 순간에도 “내 거는 안 돼!”, “내 거가 어딴거? 결혼할 때 집 사 줬으면 됐지!”, “나만 사 줬어? 오빠들은?”이라고 말하며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안 패거리가 ‘강태국’에게서 옷 보따리를 빼앗기 위해 합심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에서 ‘강태국’은 아수라장이 된 사람들 중 ‘장민숙’, ‘강대영’, ‘염소팔’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믿고 있던 세탁소 사람들까지 할머니의 옷을 찾고 있음에 놀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이 ‘강태국’에게 들킬까 봐 동물 소리를 냈을 뿐, 동물로 변한 것은 아니다.

②, ④ ‘강태국’은 사람들이 세탁소에 들어와서 할머니의 옷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③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수색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강태국’이 두꺼비집을 울려 세탁소의 불을 켜므로 두꺼비집이 고장 난 것은 아니다.

04 ‘옷 보따리’는 할머니가 세탁소에 맡긴 물건으로, 할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옷 보따리가 발견된 후 인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오답 풀이 ㄴ.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은 마지막 세탁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 자식들은 할머니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옷 보따리가 할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내공 쌓기 ⑧

145쪽 01 ③ 02 ③ 03 ① 04 오아시스 세탁소

01 ‘하강 - ③’은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을 차지하려 세탁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세탁하는 장면이다. 이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문학적인 장치로, 세탁기에서 빨래의 때가 깨끗하게 빠지듯이 돈에 눈먼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것을 상징한다.

02 할머니의 눈물 고름에는 재산을 모두 자식들 뒷바라지에 써서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형제간에 의 상할까 걱정되어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다. ‘강태국’은 자식들 뒷바라지로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주기 위해 할머니의 눈물 고름을 태워버린다.

03 '강태국'은 정말 할머니의 상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안 패거리에게 어머니의 임종은 지키고 온 것이냐며 따져 묻은 것이다.

04 서술형 '오아시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 가운데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을 의미한다. 이 희곡의 공간적 배경인 '오아시스 세탁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을 상징한다.

내공 기르기

이 글의 제목 '오아시스 세탁소'의 의미는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야. '오아시스'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서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오아시스 세탁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임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축집게 예상 문제

본문 146~155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② 10 어머니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자식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11 ④
12 ② 13 ④ 14 ③ 15 ③ 16 ① 17 ⑤
18 ④ 19 ④ 20 ① 21 ⑤ 22 ② 23 ④
24 ② 25 ① 26 ③ 27 '장민숙', '염소팔' 28 ⑤
29 누물 고름 30 ⑤ 31 ③ 32 ③ 33 ①
34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35 할머니의 죽음 2단계 36 재산을 모두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지만, 자식들 간의 의가 상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3단계 37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

- 38 ④ 39 ② 40 ⑤ 41 개인 중심의 세태를 비판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42 ⑤

01 이 글은 희곡으로,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해 쓰인 연극의 대본이다. 함축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시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안미숙'은 저쪽을 뒤지라는 '허영분'의 말에 '허영분'이 자신을 따돌리고 어머니의 옷을 먼저 찾으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안미숙'이 '허영분'을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강태국'을 '세탁'이라고 부르거나, '강태국'의 먹살을 잡아 팽개치는 등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

② "(장민숙을 밀어 넘기며) 옷이 문제야, 지금?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그래, 돌았다. 건드리기만 해, 아주, 폭행죄로 처벌을 테니까." 등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③ 옷을 뒤지는 '허영분'과 '안미숙'에게 "(서로 의심하여) 거기 뭐 좀 있어?"라고 묻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세탁소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다짜고짜 세탁소를 뒤지는 안 패거리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

03 세탁소 사람들은 할머니의 옷을 내놓으라며 갑자기 들이닥친 안 패거리 때문에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따라서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세탁소 사람들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티끌 모아 태산'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⑤ '낯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낯을 보면서도 기역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4 '장민숙'의 대사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예요!"는 남편 '강태국'이 '안유식'에게 먹살을 잡혀 팽개쳐지자, 이를 보고 놀라서 한 말이다. 따라서 ㉠에는 '놀라'라는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이 글에서 세탁소 사람들과 안 패거리가 갈등을 빚는 원인은 안 패거리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무작정 세탁소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갈등의 원인을 빈부 격차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글에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안 패거리와 그에 맞서는 세탁소 사람들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07 안 패거리는 투병 중인 어머니로부터 '세탁'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세탁소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찾기 위해 세탁소를 습격한 것이다.

08 이 글에서 '서옥화'는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의 갈등 상황을 정리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09 '강태국'은 안 패거리가 자신의 세탁소에서 할머니의 전 재산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자 난감해한다. 그 후 할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전화를 받고 안 패거리가 물리갈 때는 할머니의 임종보다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한다. 그 후에 '서옥화'마저 세탁소에 할머니의 재산이 있다고 여기는 발언을 하자 다시금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10 서술형 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사에 전화에도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안 패거리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안 패거리

가 간병인보다도 어머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식들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건강', '병세' 등의 단어와 '재산', '물질' 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썼다.	☐
제시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11 ㉠은 오빠인 '안유식'이 상의도 없이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50 프로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차라리 세탁소를 통째로 사서 재산을 찾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안미숙'이 한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조금만 더 인심 쓰이지 않고."는 재산의 행방에 대해 '세탁'이라는 말 외에 단서를 남기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말이다.
 ② 세탁소 사람들을 훑어보는 것은 세탁소 사람들이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③ '강태국'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패거리에게 할머니를 잘 보내 드리라고 말한 것이다.
 ⑤ '서옥화'도 안 패거리와 마찬가지로 세탁소 안에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물(이 숨어 있는) 세탁소라고 말한 것이다.

12 '안유식'이 ㉡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세탁소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제안을 자신과 함께 자리를 뜰 동생들, 즉 '안경우'와 '안미숙'을 회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는 없다.

13 이 글에는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찾는 사람에게는 50 프로를 주겠다는 제안에 태도가 바뀐 세탁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당시의 사회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14 '안경우'와 '안미숙'이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세탁소에서 좀 더 수월하게 어머니가 남겼을 단서를 찾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를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뒤늦게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라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한 톨도 줄 수 없다는 듯) 50 프로가 뉘 집 애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② "서옥화 팔자 한번 바꾸어 보드라고!"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④ "(이를 악물며) 나두 하구 싶은 거 있는 사람이야. 이젠 다 하구 살 거. 아야!", "(머리를 쥐어박으며) 너 하고 싶은 거에 왜 부모 끌어들여? 연수 갈라든 어서 찾거나 해"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⑤ "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을 틈게~엄니, 내는 이자부터 도둑놈입니다."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15 '강태국'이 세탁소를 뒤엎은 것은, 가장 먼저 재산을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안유식'의 제안 이후, 아내 '장민숙'까지 태도를 바꾸어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자 화가 났기 때문이다.

16 '도깨비 옷 파티'는 사람들이 옷을 뒤져 옷들이 이리저리로 날아다니는 것을 묘사한 표현이다.

17 "이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 있게 살아 보겠는데 왜 흔들어? 돈이 뭐야? 돈이 세상의 전부야? 느이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거든……."에서 '강태국'이 세탁소 일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우리 마누라 알뜰해서 너 먹을 거 없다."라고 말한 것은 고양이를 쫓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 지나치게 알뜰한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다.
 ② "돈이 뭐야? 돈이 세상의 전부야? (술 한 모금 마시고) 느이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라는 '강태국'의 대사에서 '강태국'은 돈을 떠나 자신의 신념대로 세탁소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강태국'은 세탁소 일을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를 빼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④ '강태국'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세탁소를 물려주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8 ㉠은 아버지의 세탁 비법이 적힌 공책으로, '강태국'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자, 후에 할머니의 옷을 찾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19 ㉡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대사이다. 뒤에서 "느이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거든……."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강태국'은 앞으로도 세탁소 일을 계속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0 뒷부분에서 '염소팔'이 두꺼비집을 내려서 세탁소가 어두워진다. 따라서 무대가 어두워지도록 조명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등장인물들이 고양이 소리를 흉내 낼 뿐, 직접 고양이 인형 탈을 쓸 필요는 없다.
 ③ 공간적 배경은 오아시스 세탁소이므로, 여러 번 바꿀 필요가 없다.
 ④ '잡기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새것이 아닌 헌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방백은 등장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이므로 속삭이듯이 말할 필요가 없다.

21 '강태국'은 사람들이 세탁소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는 것일 뿐,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할머니의 재산에 관한 단서를 찾을까 봐 안채로 가는 것은 아니다.

22 '염소팔'은 '강태국'이 "뭐야, 염소팔이냐?"하고 짐짓 떠보듯 한 말에 괜히 놀라서 강아지처럼 "으옹!", "꼬옹!"하는 소리를 낸다. 이러한 '염소팔'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속담은 '지는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도둑이 제 발 저리다'이다.

- 오답 풀이** ① ‘방귀 편 놔미 성낸다’는 자기가 방귀를 끼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이다.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 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 ④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혹은 실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3 ‘강태국’은 문득 아버지의 잡기장에 할머니의 세탁물에 대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에는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이’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세탁소에 사람들이 침입했다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하며 “이거 어두워서, 빨리 비워 드리지 못하겠는걸.”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에는 ‘능청스럽게’라는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4 이 글에서 ‘강태국’은 물질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의 도리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25 ㉠에서 ‘안경우’는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다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은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 ③ ㉢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하기 태도를 보인다.
- ④ ㉣은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26 ‘웃 보파리’는 할머니가 세탁소에 맡긴 것으로, 사람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는 소재이다. 사람들은 이 웃 보파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대립한다. 따라서 웃 보파리는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서술형** ‘장민숙’과 ‘염소팔’은 안 패거리와 갈등하다가 할머니의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서는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안유식’의 제안 이후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게 되었고 ‘강태국’과 갈등하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태도가 바뀐 사람을 제대로 썼다.	☐
극의 전반부에서 안 패거리와 갈등했지만, 극의 후반부에서는 ‘강태국’과 갈등하게 된 사람을 제대로 썼다.	☐

28 ‘강태국’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웃 보파리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웃 보파리를 달라는 사람들의 말에 웃 보파리를 들고 도망친다.

29 **서술형** ‘눈물 고름’에는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모든 재산을 쓴 것과 남은 재산이 없는데도 자식들 간에 의가 상할까 봐 말하

지 못한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눈물 고름’은 자식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할머니의 삶을 상징한다.

30 ‘강태국’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잊고 오로지 재산의 행방에 대한 단서만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숨어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짐승과 같다고 느끼고 있다.

31 ㉠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사람들이 세탁됨으로써 탐욕스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비현실적인 장면이다.

32 ‘눈물 고름’에는 할머니가 재산을 모두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데도 자식들 간에 의가 상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따라서 강태국은 이와 같은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드리기 위해 눈물 고름을 태우는 것이다.

33 ㉢은 세탁기에서 빨래의 때가 깨끗하게 빠지듯이 돈에 눈먼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뀐 것을 뜻한다. 따라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실했던 인간다움과 순수함을 되찾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기르기

이 글 후반부의 세탁 장면은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해,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잘 담겨 있거든.

34 이 글의 마지막 세탁 장면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문학적 장치이다. 세탁기에서 빨래의 때가 깨끗하게 빠지듯이 돈에 눈먼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와 같이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35** ㉡은 할머니가 ‘세탁’을 통해서 자식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놓고 편히 하늘나라로 떠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할머니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2단계 **36** ‘강태국’의 대사를 통해 할머니의 재산이 자식들 뒷바라지로 남은 것이 없으며, 자식들 간의 의가 상할까 봐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할머니의 웃고름에 적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강태국’은 이러한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주기 위해서 눈물 고름을 태워 버린다.

평가 기준	확인
눈물 고름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썼다.	☐
할머니 재산의 행방이 드러나도록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3단계 37 이 글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리고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탁소에서 세탁이 된 후 순수하게 정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세탁소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4어절로 썼다.	☐

38 이 시는 1연과 2연에서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하고, 3연에서 개인화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ㄴ. '고기반찬'은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진 현대의 반찬을 의미한다.

39 ㉠은 과거의 밥상 풍경이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고, 가끔 이웃이나 먼 친척까지도 모여 같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풀잎 반찬과 같은 소박한 반찬을 놓고도 정겹게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였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40 ㉡은 오늘날의 밥상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서로 마주하며 밥을 먹기 힘든 삭막한 모습을 자조적인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41 서술형 3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일상에 바빠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오늘날의 삭막한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즉,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확대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약화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오늘날의 '개인 중심의 삶의 방식'과 과거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42 〈보기〉를 통해 이 시의 시인은 개인화된 삶을 비판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혼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얼굴 반찬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회 운동이 아닐까?'라고 한 것에서 시인이 가족 공동체 중심의 사회만 추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자신 있게 말하기



내공 쌓기 ①

159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1 말하기 불안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02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이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화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이나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말하기 불안이 높을 수 있다. 대중 앞에서 말을 해 본 경험이 많거나 말하기 상황에 친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하기 불안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

03 1의 (2) 활동은 (1) 활동에서 스스로 자신의 말하기 상황을 점검한 후, 짝과 함께 점검 항목을 살펴 보면서 자신의 말하기 불안의 이유를 함께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2) 활동을 한다고 해서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말하기 불안의 증상을 알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말하기 불안 증상 하나당 5도의 온도를 표시하게 되므로,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 다양할수록 말하기 불안 온도는 높아진다.

④ 말하기 불안 온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말하기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말하기 불안 증상이 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비슷한 항목에 표시한 친구는 증상이 비슷하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인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04 말하기 불안을 겪는 학생이 자신의 말하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면 자신이 겪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내공 쌓기 ②

161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1 '송우연'은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서는 자아 개념이나 성격, 내용에 대한 확신 부족,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 부족,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 대중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의 부족 등이 있다. 하지만 ④의 학생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발표를 했다고 하였으므로 말하기 불안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내공 기르기

이 단원에서는 말하기 불안의 개념,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다양한 원인과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핵심이야. 만화 속 등장인물이 겪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생각해봐.

02 ㉠에서 ‘송우연’의 다리가 달달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것은 발표를 앞두고 점점 초조해지는 ‘송우연’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며, ‘송우연’의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는 이 만화를 통해서 알 수 없다.

03 선생님의 호명에 ‘송우연’은 깜짝 놀라서 대답할 뿐, ‘송우연’이 발표를 하겠다고 지원한 모습은 만화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라서 “네! 네!”하고 대답하며 어수선하게 쿡쿡거리며 벌떡 일어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목소리를 가다듬는 ‘송우연’의 얼굴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송우연은 발표를 하기 전 “흠……. 흠…….”하고 목청을 가다듬으며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04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송우연’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떨어져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

내공 쌓기 ③

163쪽 01 ③ 02 ④ 03 ② 04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01 이 만화에서 ‘송우연’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환경에 친숙하지 않으며,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지 걱정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말하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만화를 통해 말하기 불안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송우연’이 어질어질하게 느끼는 것은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급 친구들의 시선이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말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을 리코더를 불다가 ‘뽀!’하고 실수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② ‘송우연’이 친구들이 바웃거나 어려운 질문을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며 상상을 표현한 것이다.

③ ‘송우연’이 발표를 하기 전 교복에 손바닥을 닦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⑤ ‘송우연’의 시선에서 자신만 쳐다보는 친구들을 그린 장면을 보면 ‘송우연’이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03 ‘송우연’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의 시선!’이라며 자신만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발표 시간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한다. 이 때 친구들은 ‘송우연’을 걱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아 말하기 불안이 생길 때의 해결 방안이다. 이는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내공 쌓기 ④

165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⑤

01 ‘송우연’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발표 연습을 하거나, 청중이 질문할 내용을 짐작해 본 뒤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 놓는 방법이 있다. 또 너무 긴장이 되었을 때는 깊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간단한 체조를 하면서 몸을 풀어 준다. 또한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후,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02 ‘송우연’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청중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거나, 청중과 소통하기 위해서이지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03 발표를 들 때에는 발표자의 말을 경청하며,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며 듣는 것이 좋다. 또 동의하는 내용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점은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손을 들어 질문하도록 한다. 또한 발표를 들 때는 발표자와 눈을 마주치며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등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내공 기르기

발표를 들 때 청중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에 대답하기, 상체 기울이기, 긍정적인 표정 짓기, 메모하기, 질문하기 등을 활용한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들을 수 있을 거야.

04 발표를 할 때는 언어적 표현의 전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소리의 크기, 말의 빠르기, 어조, 손짓, 몸동작 등 적절한 언어·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내공 쌓기 ⑤

167쪽 01 ③ 02 ⑤ 03 ④

01 이 글은 발표 불안을 상담해 본 의사이자 본인 또한 발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정신과 의사의 불안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칼럼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할 만한 문제 해결 방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발표 불안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없애니 발표 불안이 사라졌다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잘 떨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03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기를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 편해졌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완벽하게 발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리며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축집게 **상** **예상 문제** 본문 168~171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5 너무 긴장이 되었을 때는 깊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간단한 체조를 하면서 몸을 풀어 봐. **06 ④ 07 ① 08 ④**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9 말하기 불안 **2단계 10** 발표 전에 청중이 질문할 내용을 짐작해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 발표 도중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3단계 11** 청중은 발표를 듣고 동의하는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긍정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다.

12 ④ 13 ㉠: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함. **㉡:**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14 ③ 15 ③ 16 ③ 17 ④ 18 ① 19 ③**

01 말하기 불안은 무대 공포, 수줍음, 부끄러움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말하기 불안 증세가 있다. 말하기 불안 중 과거의 실패 경험, 부정적 자아 개념 등 개인적인 원인과 관련된 것들은 개인별 차이가 크다.

02 발표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와 ㉡는 발표자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발표 연습을 하거나, 청중이 질문할 내용을 짐작해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발표 준비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반면 ㉢의 경우 막연한 불안 심리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03 이 만화는 ‘송우연’이라는 인물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사건들을 그린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은 ‘송우연’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느끼는 불안을 드러낸 부분으로, 비웃는 친구들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송우연’이 상상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뻔!’, ‘ㅋㅋㅋ’, ‘속속’, ‘어질어질’ 등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문자로 표현하고 있다.
 ②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송우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③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등은 ‘송우연’의 생각을 말풍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송우연’의 생각을 표현한 부분은 상상 속 장면이고, 손바닥을 교복에 댄 장면이나 종이를 보고 있는 장면은 실제 ‘송우연’의 상태를 그린 현실 장면이다.

04 이 만화에서 ‘송우연’은 발표를 앞두고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주먹을 꽉 쥐 손,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 식은땀을 흘리고 목청을 가다듬는 모습에서 발표를 앞두고 매우 긴장했음을 알 수 있고, 고개를 들지 않고 발표하는 모습에서 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대답하고 있다.

05 서술형 신체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도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긴장으로 뭉뚱한 몸을 풀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 몸의 힘을 빼고 깊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말하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신체의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썼다.	☐
제시된 문장의 형식에 맞게 썼다.	☐

06 ‘은기’가 발표 내용을 공책에 정리한 것은 ‘송우연’이 발표할 내용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 혹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청중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은 발표자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므로, 발표자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② ‘송우연’은 어려운 질문이 나올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을 한다면, 발표 도중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발표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청중은 발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음을 상체를 기울여 듣고, 긍정적인 표정을 지음으로써 발표자에게 보일 수 있다.
 ⑤ 서하와 은기 모두 청중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07 ‘송우연’은 발표를 할 때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거나 실수를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또 친구들이 비웃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까 봐 긴장하고 있다.

08 ‘송우연’은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낯선 청중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말하기 불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9 무대 공포, 수줍음, 부끄러움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에 앞서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말하기 불안’이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제대로 썼다.	☐
2어절로 썼다.	☐

2단계 10 ㉠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까 봐 걱정을 하는 말하기 불안 증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표할 내용 중에서 친구들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뽑아 답변을 마련해 놓는다. 그리고 예상했던 질문이 아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밝히고,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평가 기준	확인
말하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대로 썼다.	☐
발표 전과 발표 도중으로 나누어 썼다.	☐

3단계 11 청중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은 발표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은 발표자의 말에 동의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집중하여 발표자를 쳐다보고,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것도 발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방법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청중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제대로 썼다.	☐
청중의 반응 중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두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썼다.	☐

12 ‘나’는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후 말하기 불안을 확 줄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 ~ 종이에 꼼꼼히 적어 놓고 읽기도 했다.’에서 과거 ‘나’에게 말하기 불안 증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을 확 줄였다.’에서 ‘나’는 예전에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③ ‘상담을 하다 보면 ~’에서 글쓴이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직업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⑤ ‘발표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3 서술형 글쓴이는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창피 좀 당하고 말지, 차라리 실수해 버리지, 불안해도 괜찮다’와 같이 생각을 바꾸어 불안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 항목의 내용을 제대로 썼다.	☐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썼다.	☐

14 말하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 말하기 행위,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말하기 행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수 없이 발표를 하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은 남을 부러워하는 행동일 뿐 말하기 불안 극복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다.

15 ①과 ②는 강박 관념의 예에 해당하고, ④와 ⑤는 부정적

인 자아 개념의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③의 경우는 강박 관념에 대한 생각을 전환한 것에 해당한다.

16 ‘3분 말하기’를 하기 전에 발표 내용을 준비할 때는 듣는이의 관심이나 흥미, 발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듣는이의 수준에 맞춰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17 발표를 할 때는 목소리 크기, 말의 빠르기, 어조, 몸동작, 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진지한 내용을 전달할 때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발표를 해서는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18 청중은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때, 동의하는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발표자가 질문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③ 발표를 들을 때는 긍정적이고 온화한 표정으로 들어야 한다. 비난하는 표정을 지으면 발표자가 긴장할 수 있다.

④ 팔짱을 끼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발표자에게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⑤ 궁금한 점은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손을 들어 질문해야 한다.

19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특히 자신의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심리가 말하기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환경에 친숙하지 않을 때 말하기 불안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발표 경험이 많거나 말하기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말하기 불안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②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면 말하기 불안을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학생이라면 말하기 불안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⑤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에 확신이 없는 경우 말하기 불안을 생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학생이라면 말하기 불안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문 172~179쪽

대단원 평가



- | | | | | |
|---|-----------------------------|------|------|------|
| 01 ④ | 02 ④ | 03 ③ | 04 ⑤ | 05 ④ |
| 06 ㉡: 도리, ㉢: 물질적인 것(돈) | 07 ④ | 08 ① | | |
| 09 ④ | 10 어둠 속에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 | 11 ④ | 12 ⑤ | 13 ④ |
| 14 ③ | 15 ② | 16 ③ | 17 ④ | 18 ⑤ |
| 19 얼굴 반찬 | 20 ④ | 21 ② | 22 ② | |
| 23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청한다. 발표자를 집중하여 쳐다본다. 동의하는 부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발표자의 질문에 대답한다. 등 | 24 ② | 25 ③ | 26 ④ | |
| 27 ② | | | | |

01 이 글은 (오아시스) 세탁소를 배경으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희곡이다. 이 글에서 사건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02 (라)에서 안 패거리의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에 세탁소를 떠난다. 하지만 이는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유식’이 세탁소를 떠나며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가장 먼저 찾는 사람에게 전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는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03 ‘안유식’은 ‘강태식’을 “당신 말야, 세탁!”이라고 부르고, 명함을 주고 떠날 때에도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라고 말하는 등 ‘강태국’을 비롯한 세탁소 사람들을 무시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로 의심하여) 거기 뭐 좀 있어?”라는 대사를 보면 ‘안경우’는 할머니의 간병인인 ‘서옥화’는 물론 가족인 ‘안유식’, ‘허영분’, ‘안미숙’도 믿지 않는다.

② 저쪽을 뒤져 보라는 ‘허영분’의 말에 “(의심하여) 싫어요, 나도 여기서 찾을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안미숙’은 ‘허영분’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염소팔’은 ‘안유식’의 50 프로 제안 이후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지만 이 글에 세탁소 사람들 몰래 안 패거리에게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 ‘강태국’이 ‘장민숙’의 말에 세탁소를 뒤엎은 것은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하며 돈에 관심을 갖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지 ‘장민숙’이 안 패거리와 한 통속이라고 의심해서가 아니다.

04 ‘안유식’의 대사 중에 “무슨 정신이 나는지 ‘세탁’, ‘세탁’ 이렇게 두 마디 간신히 하고 입을 달짝 못하시니 ~”라는 부분에서 할머니는 ‘세탁’이라는 단어만 이야기했을 뿐, 재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그거야 어머님 고향이 안중이고…….”라는 ‘허영분’의 대사 에서 알 수 있다.

② “아버님 집안이 재산가이신 데다가 우리 집이 부동산이 워낙 많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노인네가 ~”라는 ‘안유식’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안유식’이 할머니의 장남이며, 둘째 아들인 ‘안경우’와 막내 딸 ‘안미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말 한마디 못하고 덜컥 똥을 맞아 갔구, ~”라는 ‘안유식’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05 ‘안경우’가 ㉔과 같이 말한 것은 할머니의 장례식에 올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며, 세탁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06 **서술형** [A]에는 어머니의 이름조차 모르는 안 패거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안 패거리가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

리도 저버린 채, 재산의 행방에만 관심을 보이는 탐욕적인 인물 들임을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㉔에 ‘도리’라고 썼다.	☐
㉔에 ‘물질적인 것(돈)’과 관련된 내용을 썼다.	☐

07 ‘강태국’의 아내 ‘장민숙’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은 마음에 딸 ‘강대영’과 함께 할머니의 재산에 관한 단서를 찾고자 세탁소에 잠입했다. 따라서 부모로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강대영’을 꾸짖는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안미숙에게) 정말 김순녀 맞아?”, “맞다니까, 증 확인했어. 큰오빠는 미쳤어. 정말, 반이 뭐야?”라는 ‘안경우’와 ‘안미숙’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

② ‘강대영’은 “(짜증 내며) 엄마가 하고 싶은 거에 왜 나까지 끌어들여. 진짜 짜증 나!”라고 말하고 있다.

③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듯) 50 프로가 뉘 집 애 이름이야?”, “그러다 똥 땅 갖고 날르면 또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라는 ‘허영분’과 ‘안유식’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

⑤ “(확인하듯이) 집 한 칸, 아가씨 데려다 앉히고 엄니 모시러 가고……. 엄니, 내는 이자부터 도둑놈입니다.”라는 ‘염소팔’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08 세탁소에 대한 모든 기록이 적힌 아버지의 잠기장은 ‘강태국’에게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자, 세탁물을 맡긴 기록을 통해 할머니의 옷을 찾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09 ‘강태국’을 제외한 인물들이 세탁소에 잠입한 이유는 할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돈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10 **서술형** (나)에는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뒤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중 ‘어둠 속에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1 ‘강태국’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세탁소를 뒤지는 사람들은 ‘야옹’, ‘ 짹짹’ 소리를 내며 동물 흉내를 낸다. 작가는 ㉔을 통해 물질 앞에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12 ‘반짝이는 불빛들의 대이동’은 ‘강태국’이 잠기장에서 할머니의 옷에 대한 행방을 찾자, 세탁소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할머니의 옷을 찾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3 짐승 소리로 으르렁대는 사람들의 모습은 돈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점점 더 음흉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는 것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① ‘강태국’을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할머니의 재산에 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밤에 몰래 세탁소에 잠입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검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도깨비 옷 파티.’는 이리저리 집어던져져 날아다니는 옷들을 의미한다.

③ '때 많은 세상'은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⑤ '강태국'은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14 '강태국'이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한 것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않고 재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세탁소에 온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한 말일 뿐, 사람들의 정체가 짐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강태국'은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주기 위해 눈물 고름을 태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동생을 때리며) 야, 김순임이잖아!"라는 대사에서 '안경우'와 '안미숙'이 그때서야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장민숙'과 '강대영'은 '강태국'이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단서가 되는 옷 보따리를 찾은 것을 알고는 할머니가 남긴 재산의 50 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에 겨워 기뻐하고 있다.

⑤ (라)에서 '강태국'은 할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써 버렸지만 자식들 사이에 의가 상할까 봐 끝내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5 <보기>는 복돈이 유행하는 세태에 관한 내용으로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젖어든 당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가)~(라)에서도 '강태국'을 제외한 사람들이 돈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실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강태국'의 대사에서 순수하게 신념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지만, 세탁 장면과는 관련이 없다.

17 (마)의 글쓴이는 개인화된 삶을 비판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가 반찬이 되어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왔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18 (마)는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의 대조를 통해 현대 사회의 개인 중심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1연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과거의 밥상 풍경을, 2연은 함께 밥을 먹어 사람이 없는 오늘날의 밥상 풍경을, 3연은 오늘날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1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과 동생, 누나 등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던 과거의 밥상 풍경이 드러나 있다. 이는 과거 대가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밥상에 빚대어 나타낸 것이다.

②, ④ 2연에는 고기반찬이 가득하지만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는 현대의 밥상 풍경이 드러나 있다. 이는 서로 마주하며 밥을 먹기 힘든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빚대어 표현한 것이다.

19 서술형 1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누나,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 고모와 삼촌의 얼굴을 반찬으로 표현하고 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들을 '얼

굴 반찬'에 비유하여 대가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마주하고 밥을 먹던 정겨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20 발표자가 말하기 불안을 이겨 내고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도 중요하다.

21 '송우연'은 발표를 앞두고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발표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을 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을까 봐 염려하고 있다. 또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까 봐 걱정하고, 자신만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2 발표 내용과 관련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면 청중이 질문할 내용을 짐작해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또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23 서술형 청중은 발표자의 말을 경청하며 듣고 동의하는 부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야 한다. 또한 발표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중요한 내용 메모하기, 상체 기울이기, 긍정적인 표정 짓기 등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기준	확인
바람직한 청중의 태도를 제대로 썼다.	☐
두 가지 이상 구체적인 태도를 썼다.	☐

24 이 글은 발표 불안을 상담해 본 의사이자 본인 또한 발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정신과 의사의 불안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진술한 칼럼이다. 이 글은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주제로 하고 있다.

25 이 글은 생각의 전환으로 발표 불안을 극복해 낸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쓰고 있을 뿐, 의학적인 약물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발표 불안의 유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지만,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발표 기법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해도 말하기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언급했을 뿐, 다양한 위인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26 글쓴이는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므로써 역설적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④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신을 다그치는 것 대신,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27 글쓴이는 발표 불안은 인생의 성취 수준에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발표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01 ① 02 ⑤ 03 ⑤ 04 ③ 05 ㉠:
 다급한 사연, ㉠: 바람 06 ③ 07 ① 08 ④
 09 ③ 10 ④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③ 16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을 잘 못 봤어요. 17 ⑤ 18 ② 19 ④
 20 ③ 21 ⑤ 22 조선의 자존심 23 ②
 24 ③ 25 ③

01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에는 주제적인 태도로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면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의도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02 이 시에서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대립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시는 말하는 이가 ‘너’를 기다리는 태도와 ‘너’를 만났을 때의 심정을 드러내며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 온다’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확신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시적 대상인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너는 온다.’라는 표현에서 시적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믿음이 드러나며, 마지막 행에서는 시적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03 이 시에서 ‘나’는 ‘너’를 간절하게 기다렸고, ‘너’는 더디지만 마침내 ‘나’에게 왔다. 이 시는 이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너’를 만난 ‘나’의 기쁨과 반가움, 감격을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는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② ‘너’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마음을 ‘바람’이 ‘너’에게 전한다.

③ 한눈을 판 것은 ‘너’이며, 말하는 이는 ‘너’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다.

④ 말하는 이가 ‘너’를 만나고서도 일어나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은 지쳐서가 아니라 ‘너’를 보고 눈이 부셨기 때문이다.

04 이 시의 제목인 ‘봄’은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희망을 상징한다. 따라서 막연하고 불확실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05 서술형 이 시에서 ‘다급한 사연’은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람’은 이러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봄’을 흔들어 깨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다급한 사연’이라고 썼다.	☐
㉠에 ‘바람’이라고 썼다.	☐

06 <보기>는 이 소설이 쓰인 1860년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작품을 해석한 내용이다.

07 (가)에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코르니유’ 영감은 중기 방앗간에 일거리를 모두 빼앗겼지만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신의 풍차 방앗간에서 밀을 빙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이 든 자루를 노새에게 짊어지게 하여 오솔길을 오르내렸다.

08 <보기>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떠올린 질문들이다.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려 보면 글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해당한다.

② ‘초고 쓰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해당한다.

③ ‘자료 수집 및 선별’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해당한다.

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해당한다.

09 글로 쓸 내용을 생성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글의 설계도인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앞서 마련한 내용들 중 글의 주제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다.

10 개요 작성은 글쓰기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글로 쓸 내용을 생성한 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의 짜임과 들어갈 내용을 결정한다.

11 (다)에서는 작가 ‘공선옥’이 지금까지 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써 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소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때 작가의 작품 성향을 서술한 비평집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2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자유 연상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문학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은 글에 대한 감상과 평가가 주된 내용인 서평의 특성상 주제에 벗어난 내용에 해당한다.

13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 ㄷ에는 ‘중학생이’와 같이 ‘무엇이’에 해당하며 ‘아니다’를 보충할 수 있는 보어가 필요하다.

14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부속 성분이며,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 ④의 ‘아주’는 ‘오래된’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고 ‘오래된’은 ‘시계’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따라서 ‘아주’가 ‘시계’를 꾸며 준다고 한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5 ③은 이어진문장으로 ‘밥을 먹다.’와 ‘숙제를 할게요.’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은 이어진문장의 앞 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독립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말

감탄사	예 아이코, 이게 웬 날벼락이냐.
체언+호격 조사 (‘야’, ‘아’ 등)	예 병호야, 이리로 오렴.
제시어	예 청춘,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16 서술형 오른쪽 그림에서 ‘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와 ‘시험을 잘 못 봤어요.’를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 못 봤어요.’를 만들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 못 봤다.’는 내용을 썼다.	☐
대조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썼다.	☐

17 겹문장은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는 이어진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말이 옳다’를 인용절로 안은 문장이다.

② ‘숙제를 하는’을 관형절로 안은 문장이다.

③ ‘대학생이 된’을 관형절로 안은 문장이다.

④ ‘정원이 아름답게’를 부사절로 안은 문장이다.

18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당신의 눈에 새겨집니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19 이 글은 전기문으로, 실존 인물인 ‘전형필’의 생애, 업적, 일화, 말과 행동 등을 소개하며 ‘전형필’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전형필’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교훈을 전달하며, 일제 강점기였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의 글쓴이는 ‘전형필’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20 당시 일제가 조선의 서화 전적을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은 (나)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까닭은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고희동’이 ‘전형필’에게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일제로부터 지키라고 당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오세창’은 ‘전형필’이 생각하는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계속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과거의 ‘전형필’에게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당부를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당시 조선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일을 고상한 취미로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라)에서 ‘오세창’은 조선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이 많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말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오세창’이 ‘전형필’에게 일을 해내려면 경제권이 필요하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대부분의 수집가들은 고상한 취미로 내세우기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전형필’의 외숙이 옛 선비와 같은 격조와 정신을 갖추어 한다고 조언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라)에서 ‘오세창’이 ‘전형필’의 생각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라)에서는 ‘오세창’이 뜻을 지니고 서화 전적을 모으려는 ‘전형필’을 흠족하게 여기고 있다.

22 서술형 (라)의 내용을 통해 ‘전형필’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겠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세창’은 이러한 ‘전형필’의 말에 흠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가)~(라)에는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인수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가)에는 ‘마에다’와 ‘신보’가 천학 매병을 흥정하는 모습, (나)에는 ‘전형필’이 흥정 없이 2만 원에 천학 매병을 인수하는 모습, (다)에는 ‘전형필’이 천학 매병 인수 금액을 미리 준비한 이유, (라)에는 천학 매병을 인수한 ‘전형필’의 모습과 그에 대한 ‘신보’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24 독자들은 ‘전형필’의 철저한 준비성이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 문화유산을 지켜 내려는 의지, 민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본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취향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형필’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보기 어렵다.

25 (나)에서 ‘전형필’이 헛기침을 하자 ‘마에다’와 ‘신보’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은 ‘전형필’이 ‘마에다’와 ‘신보’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한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종 모의고사 | 중간고사 2회

본문 188~193쪽

- 01 ⑤ 02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03 ④
04 독자마다 경험이나 배경지식,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이
다. 05 ③ 06 ④ 07 증기 방앗간, 풍
차 방앗간 08 ④ 09 ③ 10 ⑤ 11 ④
12 (다) 13 ④ 14 ② 15 ③ 16 ⑤
17 ② 18 주로 겹문장이 사용되어 사건의 논리적인 관
계가 잘 드러난다. 19 ② 20 ⑤ 21 자
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으
로 글을 읽게 된다. 22 ③ 23 ④ 24 ⑤
25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단호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01 이 시는 ‘봄’을 ‘너’로 인격화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너’가 온갖 더러움과 역경을 이겨 내고 오는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이 더디게 온다고 하였으므로, ‘너’를 기다리면서 즐거움과 설렘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기다렸던 ‘봄’이 왔을 때 반가움과 기쁨의 감정을 표현한다.

③ 이 시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마침내 ‘너’를 만났을 때 느낀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예찬적 태도를 보이며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02 서술형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찾아온 ‘봄’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봄’에 대한 말하는 이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다급한 사연’은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너’는 말하는 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인 ‘봄’을 의인화한 것이다. ‘너’로 의인화된 ‘봄’은 계절 순환의 섭리에 따라 당연히 와야 할 대상으로 반드시 도래할 희망을 의미한다.

②, ③ ‘빨발 구석’과 ‘썩은 물웅덩이’는 말하는 이가 애타게 기다리는 ‘봄’이 말하는 이에게 쉽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

⑤ ‘바람’은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하는 이의 마음이 담긴 ‘다급한 사연’을 ‘봄’에게 전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04 서술형 동일한 문학 작품을 읽고 독자마다 감상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나 해석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썼다.	☐

05 이 시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내고 말하는 이에게 찾아온 ‘봄’을 통해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독자)에게도 언젠가는 희망의 새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06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 ‘코르니유’ 영감과 관련된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해 주고 있다.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나’는 ‘코르니유’ 영감과 대립하거나 ‘코르니유’ 영감을 비판하지 않고, ‘코르니유’ 영감을 이해한다. 또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속은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코르니유’ 영감의 뜻을 존중하고 그를 도우려 한다.

07 서술형 이 소설은 증기 방앗간이 들어서면서 풍차 방앗간이 점차 몰락하던 시기에, 끝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풍차 방앗간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인 ‘코르니유’ 영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증기 방앗간’은 ‘근대화된 기계 문명’을, ‘풍차 방앗간’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증기 방앗간’, ‘풍차 방앗간’을 순서대로 썼다.	☐

08 초고를 쓸 때에는 적절한 단어나 표현이 당장 떠오르지 않고, 문단의 배열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일단 글을 써 보는 것이 중요하다. 초고를 다 쓴 후에 어색한 부분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② 글을 쓸 때는 내용을 생성한 후에 내용을 선별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③ 독자와 문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찾아 쓰는 것은 ‘초고 쓰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초고의 어색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09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예상 독자, 주제, 목적, 글을 실을 매체 등을 먼저 설정한다.

10 책을 펴낸 출판사의 출판 도서 목록은 책에 대한 감상과 평가를 주제로 삼는 서평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자유 연상하기를 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려야 한다.

11 이 서평에서는 ‘일가’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초고를 쓸 때에는 문단을 자연스럽게 배열하고 독자와 문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초고를 다 쓴 후에는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다.

12 서술형 (다)에는 이 소설을 읽고 앞으로 일가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는 작품 해석이다.

13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보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독립어,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힘껏’은 용언 ‘던질게’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고 ‘자’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이다.

14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①의 '거리에', ③의 '제발', ④의 '가장', ⑤의 '도서관에서'가 부사어에 해당한다. ②는 '주인공의'라는 관형어가 '웃'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15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①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②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 ④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 ⑤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내용 기르기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구분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절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찾는 문제야. 각 절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16 ㄱ과 ㄴ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오는 겹문장으로 ㄱ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 ㄴ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ㄱ과 ㄴ에는 모두 보이는 나타나 있지 않고, ㄱ에서 '그'는 관형어이다.

17 축제 안내문에 쓰인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①, ③, ⑤는 안은문장이고, ②, ④는 이어진문장이다. ②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④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이마에 흐르는'을 관형절로 안은 문장이다.
 ③ '하늘을 수놓은'을 관형절로 안은 문장이다.
 ④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와 '시험을 잘 못 봤어요.'가 대조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⑤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명사절로 안은 문장이다.

18 서술형 제시된 글은 주로 겹문장을 사용하여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사건의 논리적인 관계가 잘 드러난다. 반면 홀문장을 사용하면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제시된 글에 '주로 겹문장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
'사건의 논리적인 관계가 잘 드러난다. /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썼다.	☐

19 ㉠은 '전형필'이 수집한 미술품을 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필'의 생애를 알고 싶어 하는 '현중'의 읽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는 읽기에 어렵다고 했으므로 '현중'의 읽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

20 '전형필'은 '오세창'에게 옛 책과 서화를 모으고 싶다고 재작년 여름에 이미 이야기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스승 '고희동'이 '전형필'에게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왜놈들로부터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했으므로 일본이 우리의 서화 전적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전형필'의 아버지는 반도 여학교를 인수하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성으로 돌아온 '전형필'은 가장 먼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남긴 논밭을 돌아보았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오세창'은 '전형필'에게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도 있어야 하고, 안목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랜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21 서술형 <보기>처럼 뜻을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은 모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글을 읽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었을 때의 효과를 빠르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2 ㉠, ㉡, ㉢, ㉣은 모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형필'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은 '전형필'의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였던 일이다.

23 이 글은 전기문이다. 전기문은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과 성격을 드러내며, 인물의 삶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답 풀이 ㄱ.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ㄴ. 소설,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24 글을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25 서술형 (나)에서 '전형필'이 천하 매병이 명품임을 알아보고 빨리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전형필'의 굳은 의지와 단호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 '단호한 성품'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문맥에 맞게 썼다.	☐

-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5 ④
 06 ① 07 ㉠: 수분, ㉡: 혈관 08 ① 09 ③
 10 ⑤ 11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직접) 찍은 사진 자료
 12 ④ 13 ③ 14 ② 15 안 패거리는 할머니
 니가 '세탁'이라는 말을 하자 할머니의 재산이 세탁소에 있다
 고 생각하여 세탁소를 습격한 것이다. 16 ④ 17 ⑤
 18 ⑤ 19 할머니의 옷 보따리를 지키려는 '강태국'과
 그것을 빼앗으려는 '강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0 ④ 21 ② 22 ② 23 ④
 24 ⑤ 25 ①

01 (나)를 통해 소금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하루에 3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물, 식량과 더불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③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할 때에는 고기에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곡식에 염분이 지극히 적어 소금을 섭취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으로 보아, 곡식보다 고기에 염분이 더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가 염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분자들의 결정체이다.

02 (다)에서 다른 동물은 대부분 소금을 아끼기 위해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해 온 것에 비해, 사람은 땀과 오줌으로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하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 대부분이 땀이나 오줌으로 주로 배출되는 소금을 아끼기 위해,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해 왔다.

② 사람과 동물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그 때문에 사람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의 몸에 들어온 소금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도 하고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되게 한다. 따라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④ (나)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이 하루에 3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동물에 비해 필요로 하는 양이 많은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에는 (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라)에는 소금이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존재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내용 기르기

설명하는 글은 '처음 - 가운데 - 끝'의 짜임으로 구성돼.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지. (가)에서도 소금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 빈칸에는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소개하는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 거야. 그러므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04 (나)의 글쓴이는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가)의 글쓴이는 소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금에 대한 이러한 관점 차이를 이해할 때 (나)의 글쓴이가 (가)의 글쓴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①이 적절하다.

05 (가)에서는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아 가 신진대사 능력을 떨어뜨리고 순환계 등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용 기르기

(가)와 (나)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 보는 문제로, (가)와 (나)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대조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음을 이해하고 각각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06 (가)를 통해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소금이 고기나 채소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금에 절인 채소를 처음 먹은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고기를 훈제한다고 하였다.

③, ⑤ (가)에서 온대 지방 사람들은 겨울에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비타민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때 염장한 채소를 먹으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냉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던 옛날에는 소금에 생선이나 고기를 절여 식품을 보존했다고 하였다.

07 **서술형**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면 체세포의 수분을 소금이 빼앗아 가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혈관이 좁아져 영양소가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혈압이 높아지고 순환 장애가 생기며, 심장 및 다른 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평가 기준	확인
㉠에 '수분'이라고 썼다.	☐
㉡에 '혈관'이라고 썼다.	☐

08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은 설득하는 글이다.

오답 풀이 ② 보고하는 글은 내용과 결과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

③ 보고하는 글의 내용과 결과는 사실에 근거하여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④ 보고하는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⑤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09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동은 아니다.

10 더 알고 싶은 점은 보고하는 글의 ‘끝’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보고하는 글의 구성 요소

처음	조사 목적, 조사 동기,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
가운데	조사 내용, 조사 과정 및 결과
끝	조사한 내용 요약, 소감, 자료 출처

11 서술형 (가)는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해 설명하는 문헌 자료인데, 이것만으로는 ‘삼일 만세 운동 길’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가)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직접 찍은 사진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삼일 만세 운동 길’과 관련된 자료임을 밝혀 썼다.	☐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보조 자료의 종류를 썼다.	☐

12 (나)는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조사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 제시된 글은 ‘계산 성당’ 아치형 천장의 이맛돌, 대각선 버팀벽, 고정된 아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제시된 그림은 이맛돌, 대각선 버팀벽, 고정된 아치를 보여 주고 있다.

②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예상 독자에 맞지 않게 전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③ ‘계산 성당’이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⑤ 우리 지역(대구)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보고서의 목적을 생각할 때 ‘계산 성당’도 우리 지역(대구)의 관광지이므로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나)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보고서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13 ‘서옥화’는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할머니의 가족인 안 패거리이다.

14 이 글에는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안 패거리와 안 패거리에게 대항하는 세탁소 사람들의 외적 갈등이 주된 갈등으로 드러난다.

15 서술형 (다)에서 ‘강태국’의 대사인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말씀만 듣고 ‘세탁’, ‘세탁’ 해서 오셨는데, 한두 푼 찾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 운운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세탁소가 은행도 아니고…….”라는 내용을 통해 안 패거리가 세탁소를 습격한 까닭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안 패거리가 세탁소를 습격한 까닭을 ‘세탁’, ‘재산’ 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썼다.	☐
제시된 문장의 형식에 맞게 썼다.	☐

16 ‘강태국’은 어머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안 패거리를 비판하고자 “그래, 그 어머니 자식들은 맞나요?”라고 묻고 있는 것일 뿐, 안 패거리가 할머니의 자식이 아니라고 확신해서 묻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세탁소를 어지럽히던 안 패거리가 찾는 것이 ‘우리 어머니 옷’임을 알 수 있는 대사이다.

② 다른 쪽을 뒤져 보라는 ‘허영분’의 말을 자신을 따돌리고 어머니의 옷을 먼저 찾으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모습에서 가족이지만 서로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안 패거리가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린다는 것에서 안 패거리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⑤ 어머니가 언제 쓰러졌는지 자식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할머니의 간병인인 ‘서옥화’만 제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않고, 재산을 차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안 패거리의 모습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오아시스 세탁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9 서술형 ‘강태국’은 할머니의 옷 보파리를 찾았으나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에 치를 떨며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강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할머니의 옷 보파리를 빼앗아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갈등을 빚고 있는 등장인물을 정확하게 썼다.	☐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썼다.	☐

20 ④는 할머니가 재산을 모두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데도 자식들 간에 의가 상할까 봐 말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강태국’은 할머니가 처음 세탁물을 맡겼을 때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 내고, 잡기장에서 할머니에 관한 내용을 찾아낸다. 이를 토대로 ‘강태국’은 할머니의 옷을 찾게 된다.

② 안 패거리가 재산을 찾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않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잊은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③ 사람들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빨래가 되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⑤ 할머니를 상징하는 옷, 할머니의 치마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할머니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21 '송우연'은 발표에 부담을 느끼며 말하기 불안 증세를 드러내고 있다. 또, 청중이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청중을 쳐다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장면,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말풍선 등에서 '송우연'이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말하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에서 '송우연'이 청중들의 부정적 평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발표는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 증상이 있다고 해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준비한 대본만 보는 것은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23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발표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표 불안에 의한 고민으로, 청중과 자신의 지식수준을 비교해서 유발된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거나 발표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②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는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환경에 친숙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③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는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⑤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의 시선'은 청중이 낯설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환경에 친숙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24 발표자에게 자신감을 실어 줄 수 있는 청중의 태도는 발표를 경청하고, 공감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를 하는 도중에 박수를 치며 호응하면 발표의 흐름이 끊어져 발표자를 긴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발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중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25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전환하여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창피를 당할까 봐 불안하던 마음도 생각의 전환을 통해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라고 생각하면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

최종 모의고사 | 기말고사 2회

본문 200~205쪽

- 01** ④ **02** (가)~(다)의 글쓴이는 소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라)~(마)의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3** ③ **04** ④ **05** ⑤ **06** ①
07 ④ **08** ② **09** ④ **10** ② **11** ④
12 ⑤ **13** 조사 목적 **14** ② **15** ③
16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 프로를 주겠소!" **17** ③
18 ② **19** ① **20** ① **21** ① **22** ④
23 ② **24** ④ **25** 말하기를 철저하게 연습하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01 (나)에는 사람들이 차나 커피와 같은 몇몇 기호 식품이나 과일에는 소금을 곁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 까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서술형** (가)~(다)에서는 소금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고, (라)~(마)에서는 과다한 소금 섭취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장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가)~(다)에서는 소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라)~(마)에서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다)의 글쓴이는 소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라)~(마)의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식에 맞게 썼다.	☐

내용 기르기

(가)~(마)는 공통된 화제를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 각 문단의 내용을 파악해서 공통된 화제에 대해 (가)~(다)의 글쓴이와 (라)~(마)의 글쓴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03 〈보기〉는 소금을 넣어 음식의 맛을 더하는 사례로 생선이나 고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이 들어갈 위치는 소금을 넣어 음식의 맛을 더하는 사례를 제시한 (나)의 뒤가 알맞다.

04 (다)는 설명하는 글의 구조상 '끝' 부분에 해당한다. (가)~(다)의 글쓴이는 (다)에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 보존할 수 있게 한다.'와 같이 앞에서 제시한 소금의 역할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 빗대어 표현하여 소금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05 짭짤은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데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음식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④ 어릴 때부터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
②, ③ 짠맛은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데, 계속해서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계속 먹게 되고 결국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된다.

06 탄산 음료 속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비만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07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여러 글을 읽으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비교와 대조, 예시 같은 다양한 설명 방식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읽는 것은 아니다.

08 이 글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있는 유적지를 어떤 순서대로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나)에서 같은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정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를 사용하여 한눈에 보여 주었다.
③ (다)에서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해 소개한 내용을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찍은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⑤ (마)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더 많은 유적지를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앞으로도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09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관찰, 조사, 실험의 목적, 대상, 기간, 방법, 내용, 결과와 같은 사실과 함께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간결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방송이나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설문 조사의 방법도 활용 가능하다.

10 도표, 그림, 사진 등의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고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 수도 있다. 그러나 보조 자료를 활용할 때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11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등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원래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켜서도 안 된다.

오답 풀이 가, 나, 다. 쓰기 윤리 측면이 아닌 내용 및 표현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12 (라)는 '이상화' 시인의 고택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상화' 시인이나 그의 집에 관한 자료가 적절하다. '이상화'의 시의 낭송회 모습을 찍은 사진 자료는 (라)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라)에서 '이상화 고택'에 가면 안방에는 시인의 유품과 가족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마루에는 시인의 흉상, 마당에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상화 고택은 시인 '이상화'가 말년을 보낸 곳이므로 이 고택에서 생활하던 시인 '이상화'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13 서술형 (가)에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인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보고서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조사 목적'이라고 2어절로 썼다.	☐

14 이 글의 갈래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다. 작품을 감상할 때는 글의 갈래적 특성은 물론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수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너 하고 싶은 거에 왜 부모 끌여들여? 연수 갈라몬 어서 찾거나 해!"라는 '장민숙'의 대사에서 '강대영'은 연수를 가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의 재산을 찾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누구든 찾지만 해라. 내가 쪽쪽 다 빨아먹어 줄 테니. 서옥화 팔자 한번 바꾸어 보드라고!"에서 알 수 있다.
② "내 이번 한 번만 봐주든 다시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을 틈에 ~ 으니, 내는 이자부터 도둑놈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어머님도, 조금만 더 인심 쓰시지 않고, 세탁이 뭐야, 달롱 세탁!"에서 알 수 있다.
⑤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에서 알 수 있다.

16 '안유식'이 어머니의 재산을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간병인인 '서옥화'와 세탁소 사람들인 '장민숙', '강대영', '염소팔'까지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의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 간 갈등 관계가 '강태국'과 나머지 사람들의 갈등 관계로 바뀐다.

17 글의 흐름상 '안유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세탁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에는 '놀라'라는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8 (가)에서 '강태국'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바른 가치를 지키며 사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인물로,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강태국'은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로 그려질 뿐, 억지를 쓰며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강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마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낮에 있었던 소동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여 술을 마시고는 있지만, 매일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⑤ '강태국'은 돈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더 중시하는 인물이며, 앞으로도 세탁소 일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19 ㉠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며, 할머니의 옷 보파리를 찾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은 할머니가 세탁소에 맡긴 것으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는 단서가 되는 물건이다. '강태국'이 ㉡을 찾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20 ㉢는 '강태국'이 세탁을 끝낸 후 사람들이 깨끗해진 것을 기뻐하는 상황이므로 밝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에서 '강태국'은 순수하게 정화되어 나온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이 글은 발표 불안을 상담해 본 의사이자, 본인 또한 발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해결 방법을 진솔하게 쓴 칼럼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전환함으로써 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강연회의 제목은 ④가 가장 적절하다.

23 글쓴이는 예전에는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신을 다 그쳤다면, 현재에는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거의 글쓴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과거의 글쓴이는 발표할 때 긴장을 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뻔뻔함을 키웠더니 불안이 줄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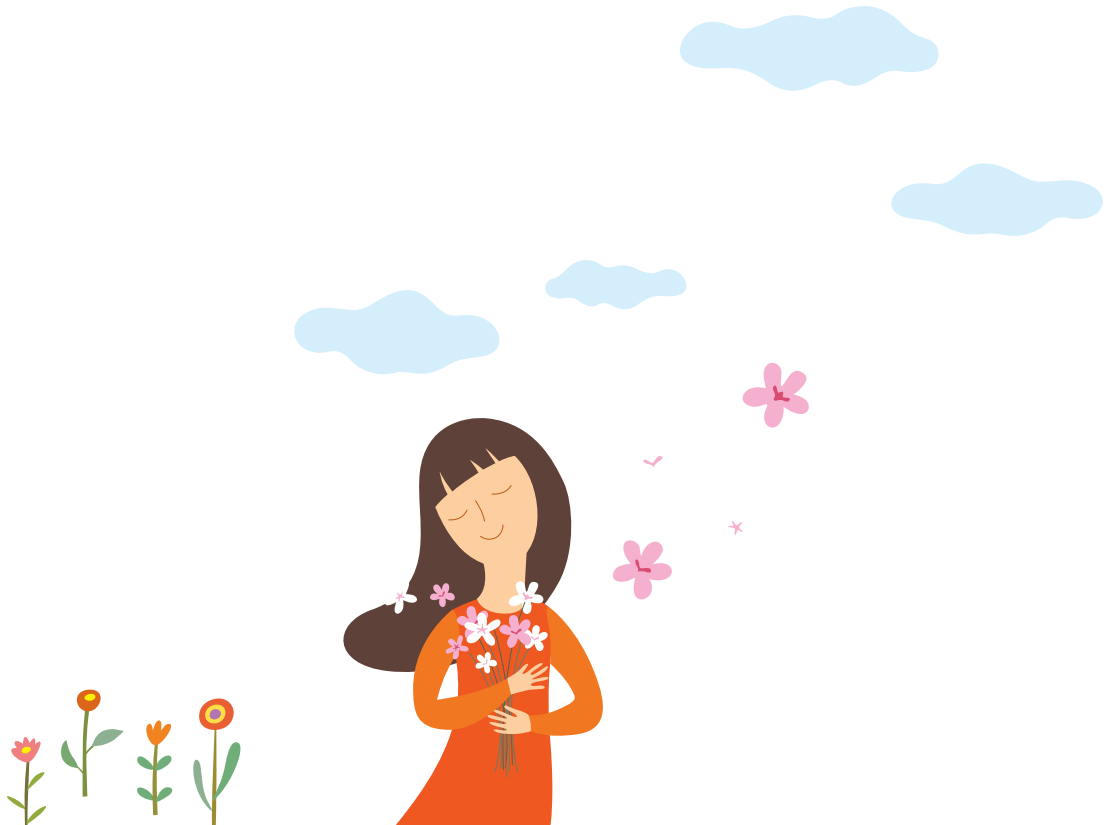
④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잘 떨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예전에는 말하기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을 상담하였지만, 현재에는 말하기 불안을 극복한 사람을 상담하는지 알 수 없다.

24 글쓴이는 신년 연설하는 것이 두려워 아랫사람에게 대신 시키는 사장의 사례를 들며,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해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25 서술형 <보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이다. 말을 심하게 더듬어 발표를 꺼리는 왕이 연설을 열심히 연습해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을 통해 ㉠에게 철저한 말하기 연습을 통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에 드러난 방법을 활용하여 조언하는 말을 제대로 썼다.	☐
말하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썼다.	☐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정답과 해설



중등국어 3-1



1. 주체적 감상과 쓰기

(1) 다양한 해석과 비평

본문 2~9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온다, 너
03 (1) ㉠ (2) ㉡ (3) ㉢ (4) ㉣ 04 희망

문제 맞보기

- 01 ⑤ 02 ② 03 ④

내용 확인 문제

- 01 ③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6 ⑤

내용 심화 문제

-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③ 06 ①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표면적 05 통제하다 06 타당하다
07 반영 08 가치관 09 ①
10 ②

핵심 체크

01 (1) 동일한 문학 작품이라도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2)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작품 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해석도 가능하지만,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 독자 등 작품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다.

0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라는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1) 이 시의 제목인 ‘봄’은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다.
(2) ‘빨발 구석’과 ‘썩은 물웅덩이’는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3) ‘다급한 사연’은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마음을 의미한다.
(4) ‘바람’은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04 ‘봄’은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자 반드시 도래할 희망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문제 맞보기

01 작품의 주인공이나 핵심 줄거리는 작가의 집필 의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02 이 시에서는 ‘온다’라는 단정적인 어조의 서술어를 사용하여 ‘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하는 이의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 ‘봄’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말하는 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자, 절망이 끝나고 도래하는 희망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당연히 와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내용 확인 문제

01 이 시에서는 ‘봄’을 의인화하여 단순한 계절의 의미를 넘어,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자 희망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온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지만 ‘온다’가 쓰인 문장을 나란히 배열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표현은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말하는 이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시에서 반복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④ 이 시에서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는 표현은 말하는 이가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과장된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⑤ 이 시는 ‘온다’라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말하는 이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02 ‘바람’은 ‘너’를 기다리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너’에게 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너’가 ‘바람’을 통해 말하는 이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없다.

03 〈보기〉의 두 학생이 ‘봄’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까닭은 같은 문학 작품이라도 독자마다 인식 수준, 관심, 경험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나 해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의 근거에 따라 독자마다 감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②의 내용이 적절하다.

04 〈보기〉는 이 글을 쓴 ‘알퐁스 도데’의 문학적 성향을 바탕으로 이 글을 해석한 내용이다. 따라서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 글을 해석한 것이다.

05 ㉠에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은 풍차 방앗간에 일거리가 떨어졌는데도 일거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풍차를 돌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르니유’ 영감은 밀 대신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들을 노새가 싣고 다니게 했다. 이는 풍차 방앗간의 일이 많은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속여 전통적인 방식인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06 ‘코르니유’ 영감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풍차 방앗간의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킨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시대 변화에 밀려난 풍차 방앗간이 서글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가)에서 알 수 있듯이 풍차 방앗간은 증기 방앗간에 일거리를 빼앗긴 지 이미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와 같은 이유로 ㉠처럼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공 심화 문제

01 ‘나’는 ‘너’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너’는 ‘빨발 구석’과 ‘썩은 물웅덩이’ 같은 장애물을 지나느라 ‘나’에게 빨리 오지 못하고 더디게 더디게 온다.

오답 풀이 ① ‘너’가 더디게 오는 이유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내야 하는 상황 때문일 뿐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너’를 만나므로, 끝내 ‘너’를 만나지 못하여 실망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마지막 행에서 ‘나’는 ‘너’를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너’가 시련을 이겨 내고 온 사람이라는 의미일 뿐 승부욕이 강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⑤ ‘너’에 대한 ‘나’의 기다림은 간절하며, ‘나’가 한눈을 팔거나 다른 이유로 ‘너’를 잊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시에서 말하는 이는 가까스로 ‘너’를 껴안았으므로, ‘너’를 주저 없이 껴안은 것은 시를 낭송하며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03 이 글은 ‘이성부’의 ‘봄’에 관한 비평문으로, 시가 창작되었을 1970년대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봄’의 의미를 ‘민주주의’ 혹은 ‘자유’라 해석하고 있다. 이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04 시인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이 국민을 통치하던 암울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시의 주제는 다가올 ‘민주주의’ 또는 ‘자유’의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05 전통의 중요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한자 성어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이라는 의미로, ‘코르니유’ 영감이 전통적인 풍차 방앗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② 대기만성(大器晩成):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06 가, 나, 다는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에 해당한다. 라 독자가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므로, 독자 중심의 해석 방법과 관련이 있다. 라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 마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어휘 문제

01 ‘비평’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을 뜻하는 말로, ‘그의 작품은 내용이 참신하다는 비평을 받았다.’와 같이 쓰인다.

02 ‘함축’은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작가의 의도가 작품 속에 함축되다.’와 같이 쓰인다.

03 ‘서정성’은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특성.’을 뜻하는 말로, ‘그는 서정성이 짙은 시를 썼다.’와 같이 쓰인다.

04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것.’을 뜻하는 말은 ‘표면적’이다. ‘이면적’은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05 ‘권력으로 언론·경제 활동 따위에 제한을 가하다.’를 뜻하는 말은 ‘통제하다’이다. ‘통솔하다’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리다.’를 뜻하는 말이다.

06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를 뜻하는 말은 ‘타당하다’이다. ‘적당하다’는 ‘정도에 알맞다.’를 뜻하는 말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어제 있었던 사건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 준다는 맥락이므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냄.’을 뜻하는 ‘반영’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그 책이 내 인생의 무엇을 바꾸었다는 맥락이므로,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事象)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뜻하는 ‘가치관’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9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독재’라고 한다.

10 문맥을 고려했을 때 ‘근거’는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을 뜻한다.

(2) 맥락을 담은 글 쓰기

본문 10~17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독자, 매체
03 (1) 자유 연상하기 (2) 개요
04 문단, 고쳐쓰기

문제 맞보기

- 01 ③ 02 ② 03 ③

내공 확인 문제

-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⑤ 06 ③ 07 ④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② 06 ③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공유하다
05 선별하다 06 압수하다 07 답소 08 일가
09 ② 10 ③

핵심 체크

01 (1)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

(2) 글을 쓸 때 ‘초고 쓰기’ 다음에 ‘고쳐쓰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02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과 함께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설정해야 한다.

03 (1) ‘자유 연상하기’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주제에 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달아 떠올리는 방법이다.

(2)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앞서 생성한 내용들의 순서를 배치하고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다.

04 ‘초고 쓰기’ 단계에서는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나 표현을 고르고, 문단을 적절하게 배열한다. 초고를 쓴 후에는 다시 한번 글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고쳐쓰기를 한다.

문제 맞보기

01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며 흥미 위주의 자료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2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글로 쓸 자료를 찾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03 글을 어떤 매체에 실을지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

내공 확인 문제

01 ㄱ은 ‘계획하기’, ㄴ은 ‘내용 조직하기’, ㄷ은 ‘초고 쓰기’, ㄹ은 ‘내용 생성하기’, ㄹ은 ‘고쳐쓰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글 쓰기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02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제주도에서 가려는 또래 친구들이다. 따라서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고, 친구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 (가)는 「일가」를 떠올리게 된 계기로 이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나)~(라)는 「일가」의 줄거리, 「일가」를 읽었을 때의 느낌,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과 이 소설에 대한 해석으로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마)~(바)는 「일가」를 읽고 얻은 깨달음 및 평가, 「일가」를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까닭으로 이 글의 ‘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04 (라)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 「일가」의 작가는 ‘아저씨’처럼 외롭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 가는 삭막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05 이 글에는 「일가」에 대한 서평을 쓰게 된 동기, 「일가」의 줄거리,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 주제 의식, 글쓴이의 깨달음, 「일가」를 추천하는 까닭 등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문학 비평가의 전문적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일가」의 줄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② (바)에서 「일가」를 추천하는 까닭을 제시하고 있다.

③ (마)에서 「일가」를 읽고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일가」의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06 (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는 ‘아저씨’에 대한 감정이 소설 속 ‘엄마’와 비슷했지만, 다시 읽어 보았을 때는 ‘아저씨’가 안쓰러웠다고 말하며 각기 다른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07 (라)에서 작가의 작품 성향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기>의 ‘공선옥’ 작가의 작품 특징에 관한 내용을 활용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내공 심화 문제

01 한 편의 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글쓰기는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을 쓸 때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에는 인터넷 매체 외에도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③ 생각 그물, 자유 연상하기, 경험 적어 보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가 아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④ 초고를 쓸 때 글의 짜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되돌아가 개요를 수정하도록 한다.

내용 기르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떠올린 내용을 옮기기에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할지 고민하는 등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 이러한 점에서 글쓰기란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 할 수 있어.

02 <보기>에는 내용을 조직한 이후, 계획한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초고 쓰기'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해결책으로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를 찾고, 주제가 잘 전달되도록 문단을 배열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글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④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⑤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03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생성할 때 떠올린 항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뺄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04 서평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의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매체에도 실을 수 있다.

05 <보기>의 안내문에서 요구하는 글의 갈래가 '서평'임을 알 수 있고,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읽은 소중한 책을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인 「일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6 '구사하다'는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의 뜻을 지닌 낱말이다. 이 글의 예상 독자는 글쓴이의 또래 친구들이므로 '사용하던'과 같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다루다'는 '기계나 기구 따위를 사용하다.'라는 의미이며, 앞뒤 문맥에 기계나 기구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뒤 문맥에 어울리는 낱말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남발하다'는 '어떤 말이나 행동 따위를 자주 함부로 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글의 앞뒤 문맥이나 글이 실릴 매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적절하게 바꾸어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감추다'는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다.'라는 의미이며, 이는 문맥에 어울리는 낱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를 뜻하는 '구사하다'가 더 어울린다.

⑤ '구사하다'는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의 의미이고, '이용하다'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라는 의미이다. 쓴다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구사하다'는 쓰는 것이 말, 수사법, 기교, 수단 등으로 한정된 반면, '이용하다'는 쓰는 것이 대상으로 '구사하다'에 비해 넓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하다'가 '구사하다'보다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휘 문제

01 '매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을 뜻하는 말로, '소리의 매체는 공기이다.'와 같이 쓰인다.

02 '맥락'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뜻하는 말로, '그 문제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와 같이 쓰인다.

03 '피란'은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을 뜻하는 말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피란을 떠났다.'와 같이 쓰인다.

04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다.'를 뜻하는 말은 '공유하다'이다. '공개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다.'라는 뜻이다.

05 '가려서 따로 나누다.'를 뜻하는 말은 '선별하다'이다. '선정하다'는 '여럿 가운데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라는 뜻이다.

06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물품을 거두어 보관하다.'를 뜻하는 말은 '압수하다'이다. '인수하다'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다.'라는 뜻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어머니와 호숫가를 산책하며 무엇을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는 맥락이므로,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담소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고향에 내려가서 어떤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는 맥락이므로, '한집에서 사는 가족.' 혹은 '성(姓)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를 뜻하는 '일가'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글월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문맥'이다.

오답 풀이 ① '문단'은 긴 글을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을 뜻한다.

③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뜻한다.

④ '배경지식'은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뜻한다.

10 문맥을 고려했을 때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을 뜻한다.

2. 문장을 엮는 손, 과정을 읽는 눈

(1) 문장의 짜임과 양상

본문 18~25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1) 한 번만 (2) 이어진
문장, 안은문장 03 명사, 명사절
04 (1) 홑문장 (2) 겹문장

문제 맞보기

- 01 ② 02 ② 03 ①

내공 확인 문제

- 01 ③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②
09 ② 10 ④ 11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⑤
08 '나는 기다렸다.'와 '친구가 오다.'로 나눌 수 있
다. 이때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
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
다. 09 ④ 10 ④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주어
05 독립어 06 이어진문장 07 겹문장
08 안은문장 09 부사어 10 ③

핵심 체크

01 (1)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
소의 언어 형식이다.
(2)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으며, 접속어는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02 (1)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홑문
장이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은 겹
문장이다.
(2) 겹문장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고, 안은문장은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03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에서 '그가 떠났다.'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는 명
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04 (1) 글을 쓸 때 주로 홑문장을 사용하면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2) 글을 쓸 때 주로 겹문장을 사용하면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
할 수 있고, 사건의 순서와 사건이나 사실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문제 맞보기

0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목적어이다. 주어진 문장은
'내가 친구를 만났다.', '내 동생은 운동을 좋아한다.'와 같이 목
적어를 추가하여 완성할 수 있다.

02 주어진 문장은 홑문장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동생은 노
래를 부른다.'가 어미 '-고'를 사용하여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
어져 있다.

03 <보기>에는 주로 홑문장이 쓰였다. 글에서 주로 홑문장을
쓰면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내공 확인 문제

01 '이 공을'은 목적어가 맞지만, 목적어는 문장을 꾸미는 역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행위의 대
상이 되는 말이다.

02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①, ②,
④, 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③에는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
는 말인 보어가 필요하다.

03 '무척'은 용언 '예쁘구나'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부사어
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

04 ③은 '주어, 부사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05 ①, ②, ④, ⑤는 안은문장이지만 ③은 이어진문장이다.
③은 '사공이 많다.'와 '배가 산으로 간다.'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②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④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⑤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06 주어진 문장은 '비가 그치지 않다.'와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가 어미 '-아서'로 연결되어 있는 겹문장이다. 즉, 앞 문
장이 뒤 문장의原因的 의미 관계로 이어져 있는 종속적으로 이
어진 문장이다.

07 ⑤는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와 '(저는) 시험을 잘 못 봤

어요.'라는 두 홑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8 ㄴ은 안긴문장인 '소리도 없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09 축제 안내문에 쓰인 문장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은 홑문장인 '장미와 함께하다.'와 '사랑이 싹틔니다.'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가)는 주로 홑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주로 겹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홑문장을 사용하면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홑문장만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장 간의 관계를 알기 어렵고 산만한 느낌을 준다. 겹문장을 사용하면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나 사실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홑문장을 지나치게 합칠 경우, 문장이 복잡해져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11 (나)의 마지막 문장은 여러 문장을 지나치게 합쳐서 문장이 복잡해졌고, 그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㉔ 부분을 나누어,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내용 기르기

	홑문장	겹문장
장점	긴박감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음.	사건의 순서와 인과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음.
단점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알기 어려움.	여러 문장을 지나치게 합칠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움.

내용 심화 문제

01 <보기>를 바탕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ㄹ의 서술어는 '되었다'인데, 이때에는 '되었다'를 보충하고 '무엇이'에 해당하는 보어가 필요하다.

02 '주인공의'는 문장에서 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①에서 '맑이'는 용언 '내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고, ②, ③, ④, ⑤에서는 '이, 맑은, 푸른, 어느, 한'이 관형어이다.

03 ㄱ은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ㄴ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ㄱ에는 없고 ㄴ에만 있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04 ③은 '부사어,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겹문장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꽃이 피다.'와 '새가 운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② '먹구름이 많다.'와 '비는 오지 않는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날씨가 덥다.'와 '얇은 옷을 입어야 한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열린 밥을 먹으러 가자.'라는 문장을 인용절로 안은 문장이다.

05 ㄱ은 앞뒤 문장이 선택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ㄴ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 ㄷ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 ㄹ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 ㄹ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배경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6 ㉠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져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은 '내가 읽고 싶다고 했던'이 체언 '책'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07 ⑤는 앞뒤 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8 서술형 주어진 문장은 '나는 기다렸다.'와 '친구가 오다.'와 같이 두 개의 홑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겹문장이다. 이때 안긴문장인 '친구가 오다.'는 안은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평가 기준	확인
주어진 문장을 '나는 기다렸다.'와 '친구가 오다.'로 나누어 썼다.	☐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안은문장의 종류가 명사절이다.'라는 내용을 썼다.	☐

09 ㄱ~ㄷ은 모두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ㄱ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므로, ㄱ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ㄴ에서 밑줄 친 부분은 부사의 역할을 하므로, ㄴ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의 역할을 하므로, ㄷ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ㄴ과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0 (가)는 주로 겹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주로 홑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홑문장을 주로 쓰면 사건의 긴박감과 속도감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휘 문제

01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다. ㉠의 '고양이를'은 서술어 '키운다'의 대상이 되는 말이므로 목적어이다.

02 '서술어'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로,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의 '주셨다'는 '선생님'의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므로 서술어이다.

03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떤’, ‘무슨’에 해당하는 말.’이다. ㉠의 ‘빨간’은 체언인 ‘사과’를 꾸며 주므로 관형어이다.

04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은 ‘주어’이다.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05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은 ‘독립어’이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 해당하는 말.’이다.

06 빈칸에 ‘이어진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홀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을 뜻하는 말이다.

07 빈칸에 ‘겹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뜻하는 말이다.

08 빈칸에 ‘안은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안은문장’은 ‘다른 홀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뜻하는 말이다.

09 ‘과연’, ‘매우’, ‘불계’는 모두 용언을 꾸며 주고 있다.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등에 해당하는 말.’은 부사어이다.

10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은 ‘보어’이다.

(2) 읽기의 점검과 조정

본문 26~33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1) ㉠ (2) ㉡
03 재산, 서화 전적 **04** 안목

문제 맞보기

- 01** ② **02** ③ **03**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단호한 성품을 지녔다.

내공 확인 문제

- 01** ④ **02** ⑤ **03** 읽기 목적, 읽기 수준
04 ⑤ **05** ③ **06**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③ **06** 무서운 승부사 **07** 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격조
05 호가 **06** 선친 **07** 구전 **08** 거간
09 ③ **10** ②

핵심 체크

01 (1) 글을 선정할 때에는 자신의 읽기 목적과 읽기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2)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읽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02 (1) 글을 읽은 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표나 그림을 활용하면 글의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사전을 이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03 ‘전형필’은 선조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조선의 귀중한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 데 쓰기로 결심하였다.

04 ‘전형필’이 천학 매병의 사진만 보고도 그 가치를 알아본 일화를 통해, 그가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맞보기

01 <보기>의 ㄱ~ㄴ은 모두 글을 읽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읽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는 활동이다.

02 ‘전형필’은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우리나라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데 쓰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민족을 위한 일이었다.

03 서술형 ‘전형필’이 내일이라도 천학 매병의 실물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전형필’의 굳은 의지와 단호한 성품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전형필”이 굳은 의지와 단호한 성품을 지녔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1 (라)에서 '오세창'은 우리 서화 전적을 모아 보겠다는 '전형필'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오세창'이 '전형필'의 생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은 '전형필'이 생각하는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나타낸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일제가 재산이 많은 조선인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간섭하는 사회적 상황이 드러난다.

② ㉠의 앞 부분에서 '전형필'은 스승 '고희동'이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왜놈들로부터 지켜 달라고 했던 당부 등을 떠올렸고, 이후 자신이 서화와 골동품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따라서 ㉠의 '그것'은 서화 전적을 모아서 그것을 왜놈들로부터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전형필'은 외숙, '고희동', 외종 형님 등의 조언을 듣고 우리 서화 전적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전형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말이다.

④ ㉠에서 '오세창'은 '전형필'이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말하며, '전형필'에게 거듭해서 질문하는 까닭을 직접 밝히고 있다.

03 서술형 '현중'은 '전형필'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하기 위해 '전형필'의 생애를 자세히 알고 싶다는 읽기 목적과, 이 책이 자신이 읽기에 적당한 수준이라는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이 책을 골랐다.

평가 기준	확인
'읽기 목적'을 썼다.	☐
'읽기 수준'을 썼다.	☐

04 (나)에서 '신보'는 '마에다'에게 천학 매병의 가격으로 만오천 원을 제안하면서, 이 가격이 지금까지 거래된 청자 매병 중에서 최고가라고 말하였다.

05 (가)에서 천학 매병이 아름다운 옥색을 띠고 있고(ㄴ), 총독부에서도 만 원을 주고 이것을 구입하려 하였다(ㄷ)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천학 매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일본인인 '마에다'이다.
ㄴ. '마에다'의 장인은 천학 매병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가 천학 매병의 사진을 여러 장 가져간 것은 주변에 천학 매병을 알리고 거래를 주선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06 서술형 '천학 매병'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천학 매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천학 매병'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1 이 글은 실존 인물인 '전형필'의 생애를 그린 전기문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전형필'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고(ㄷ), 서화 전적과 골동품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전형필'의 말에서 서화 전적과 골동품에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필'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ㄱ. '전형필'은 실존 인물이다.

ㄴ. '전형필'에 대한 평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02 '전형필'의 아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에 뜻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전형필'에게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였다.

03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전형필'이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전형필'이 절치부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유일무이(唯一無二)'는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② '속전속결(速戰速決)'은 '싸움을 오래 끌지 아니하고 빨리 몰아쳐 이기고 짐을 결정함.'을 뜻하는 말이다.

③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⑤ '심사숙고(深思熟考)'는 '깊이 잘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다.

04 (마)에서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형필'은 서화 전적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다.

05 (바)에서 '전형필'은 천학 매병의 사진만 보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천학 매병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인수 금액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를 통해 '전형필'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고(ㄱ), 준비성이 철저한(ㄷ)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서술형 (사)에서 '신보'는 거래이 오가는 큰 거래를 짧은 시간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전형필'을 '무서운 승부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07 '현중'은 (다)에서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들이 '오세창'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세창'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을 짐작하고 있다.

어휘 문제

01 '문외한'은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나는 생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와 같이 쓰인다.

02 ‘불문가지’는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음.’을 뜻하는 말로, ‘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와 같이 쓰인다.

03 ‘수장하다’는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를 뜻하는 말로, ‘그 미술관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작품을 수장하였다.’와 같이 쓰인다.

04 ‘사람의 품격과 취향.’을 뜻하는 말은 ‘격조’이다. ‘격식’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을 뜻하는 말이다.

05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름.’을 뜻하는 말은 ‘호가’이다. ‘호황’은 ‘경기(景氣)가 좋음. 또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06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을 뜻하는 말은 ‘선친’이다. ‘부친’은 “아버지”를 정중히 이르는 말.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양쪽에서 받는 보수가 꽤 괜찮다는 맥락이므로, ‘구문.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을 뜻하는 ‘구전’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흥정을 통해 물건을 팔았다는 맥락이므로, ‘거간꾼.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간’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9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다.’를 뜻하는 말은 ‘황망하다’이다. 한편 ‘황당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이고, ‘황량하다’는 ‘황폐하여 거칠고 쓸쓸하다.’이며, ‘황변하다’는 ‘누렇게 변하다.’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 선수가 매우 재빠르게 상대편 골대로 진입하여 역습의 기회를 살려 냈다는 맥락이므로,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전광석화’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한편 ‘낙화유수’는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가는 봄의 경치를 이르는 말.’이고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며 ‘오월동주’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

(1) 같은 화제 다른 글

본문 34~41쪽



핵심 체크

01 (1) ○ (2) ○ (3) × **02** ㉠: 생명, ㉡: 맛, ㉢: 신선 **03** (1) 수분 (2) 혈압 **04** 부정적



문제 맞보기

01 ④ **02** ④ **03** ③



내공 확인 문제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④ **06** ③



내공 심화 문제

01 ② **02** ② **03** ④ **04** ④
05 글쓴이는 흰색의 소금을 황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얀 황금’이라고 표현했다. **06** ③



어휘 문제

01 ㉢ **02** ㉠ **03** ㉡ **04** 체세포
05 족석식품 **06** 문명 **07** 당분
08 폭식증 **09** 중추 **10** ①

핵심 체크

01 (1) 소금은 음식을 씹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돕는다.
(2)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혈액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영양소를 우리 몸 이곳저곳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3) 사람은 소금이 갖는 짠맛의 매력 때문에 실제로 필요보다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한다.

02 글쓴이는 소금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고,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높여 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금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다.

03 (1) 소금 과다 섭취로 인해 체세포의 수분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2)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관이 좁아져 세포로 영양소 이동이 어려워지고, 혈압이 높아져 순환 장애가 생기며, 심장과 다른 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04 글쓴이는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글쓴이는,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 맞보기

01 「소금 없인 못 살아」에서 온대 지방 사람들이 채소를 염장해서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했다고 했을 뿐, 소금을 먹어 비타민이 몸에서 스스로 형성되도록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소금은 음식을 씹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②, ③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다.

⑤ 소금의 짭짤한 음식과 잘 어울리면서 그 맛을 더욱 좋게 해 준다.

02 글쓴이는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글쓴이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금이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우리의 신진대사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03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의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용 확인 문제

01 (나)와 (다)에 따르면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혈액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한다. 이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땀과 오줌으로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하도록 진화해 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고대 문명의 발생이 물, 식량, 소금의 획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소금의 양은 3그램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 신진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 채집과 사냥으로 고기를 주로 먹던 옛날에는 고기를 통해 소금을 섭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주로 곡물을 먹기 시작한 후에는 곡식에 있는 염분이 지극히 적어 소금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소금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03 (다)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근거로 들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즉 대상 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체내의 수분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음식을 너무 짜게 먹어 우리 몸에서 소금이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5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우리 몸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혈관이 좁아져서

체세포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혈압이 높아지고 결국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06 이 글과 <보기>는 '소금'을 화제로 삼고 있으며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이 글은 글로만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보기>는 그림도 함께 활용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이 글과 <보기>는 소금 섭취를 줄이자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은 같다. 하지만 그 목적을 주장하는 글과 공익 광고라는 다른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④ 이 글과 <보기>의 중심 화제는 '소금'으로 같고, 둘 다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치므로 소금 섭취를 줄이자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보기>도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 심화 문제

01 (가)~(마)와 (바)~(아) 모두 소금을 소재로 한 글이지만, (가)~(마)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금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고, (바)~(아)는 소금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들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화제를 다룬 다른 관점의 글을 읽을 때에는 중심 내용과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정리해 보고, 대상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나아가 동일한 대상을 다룬 다른 글들을 찾아 읽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워 보는 것도 좋다.

내용 기르기

각 문단의 중심 내용과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해 보면 글쓴이의 관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화제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비교해 보고 동일한 대상을 다룬 여러 글도 찾아 읽어 보면,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거야.

02 (가)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 때문이 아니라 짭짤이 가진 매력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김치를 담글 때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데, 소금에 절인 푸성귀가 발효되면서 맛있는 신맛을 낸다. 또한 생선이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소금을 뿌리면 본래의 맛이 더 맛깔스럽게 변한다.

④ 과거 온대 지방 사람들은 겨울에 채소를 먹을 수 없어 극심한 비타민 부족 현상을 겪었는데,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겨울까지 먹은 덕분에 비타민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⑤ 냉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던 옛날에 내륙 사람들은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방법으로 굴비나 간고등어를 맛볼 수 있었다.

03 (다)에는 소금이 식품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라)에서는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생선과 채소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다)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04 짬뽕은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짬뽕이 뇌의 쾌감 중추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고 음식 중독에 걸려 결국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된다.

③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갈증을 달래기 위해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를 찾는데, 짠 음식을 당분이 높은 음료와 함께 마시면 혈압이 훨씬 더 빨리 상승한다.

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05 서술형 글쓴이는 소금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황금에 소금을 빗대어 표현했고, 소금의 색이 희므로 '하얀 황금'이라고 나타내었다.

평가 기준	확인
소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으로 썼다.	☐

06 (가)는 중간 소음을 줄이자는 말을 소년을 응원하는 것처럼 돌려서 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나)는 중간 소음에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미술 작품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중간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소음은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중간 소음을 줄이자는 의도를 전하고 있다.

② (가)는 하고 싶은 말을 소년을 응원하는 것처럼 돌려서 말하고 있다. 이는 웃음을 유발하면서, 전하려는 바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④, ⑤ (나)는 무심코 소음을 유발하는 위층 사람의 모습과 이에 고통받는 아래층 사람의 모습을 잘 알려진 미술 작품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보는 이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자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어휘 문제

01 '발효'는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 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을 뜻하는 말로, '발효 식품'과 같이 쓰인다.

02 '노폐물'은 '생체 내에서 생성된 대사산물 중 생체에서 필요 없는 것.'을 뜻하는 말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땀과 오줌으로 배출한다.'와 같이 쓰인다.

03 '교역로'는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여 서로 바꾸기 위해 이동하는 길.'을 뜻하는 말로, '차마고도는

차와 소금을 실어 나르던 고대의 교역로이다.'와 같이 쓰인다.

04 '다세포 생물에서 생식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를 뜻하는 말은 '체세포'이다. '모세포'는 '분열하기 전의 세포.'를 뜻한다.

05 '간단히 조리할 수 있고 저장이나 휴대에도 편리한 가공식품.'을 뜻하는 말은 '즉석식품'이다. '건강식품'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먹는 식품.'을 뜻한다.

06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하는 말은 '문명'이다.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

07 제시된 문장은 치아 건강을 고려한다면 단 음식은 섭취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당류의 성분.'을 뜻하는 '당분'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08 제시된 문장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맥락이므로, '음식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병적인 증세.'를 뜻하는 '폭식증'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09 제시된 문장은 수술할 때 신경 기관을 자극해서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신경 기관 가운데, 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을 뜻하는 '중추'가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10 식품을 염장하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염장하다'는 '소금에 절여 저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보고하는 글 쓰기

본문 42~49쪽

핵심 체크

- 01** 관찰, 과정, 결과 **02** (1) ㉠ (2) ㉡ (3) ㉢ (4) ㉣ **03** (1) ○ (2) × **04**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문제 맛보기

- 01** ② **02** ⑤ **03** ④

내용 확인 문제

- 01** ⑤ **02** ① **03** ④ **04** ①
05 ④ **06**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고서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07 ① **08** ④ **09**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② 06 ㉠은 도표로 설문 조사 결과를 한
눈에 보여 줄 수 있고, ㉡은 사진으로 유적지의 모
습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다. 07 ④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공모
05 왜곡 06 인용 07 표절 08 보고
09 복원 10 ④

핵심 체크

01 보고하는 글이란 일정한 주제에 대해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02 (1) 주제에 대해 관찰, 조사, 실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2) 관찰, 조사, 실험할 대상, 목적 및 동기, 일정, 방법, 역할 분담 등을 계획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3)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명료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보고하는 글 쓰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4)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한 자료를 보고서에 활용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자료 정리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3 (1) 쓰기 윤리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규범을 말한다.

(2)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표절을 하지 않고,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04 ‘효주네 모듬’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문제 맞보기

01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 보고하는 글을 쓰기 전에는 글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02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쓰기 윤리를 어기게 되는 것은 아니며, 문헌 자료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효주네 모듬’은 대구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그림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내공 확인 문제

01 보고하는 글을 쓸 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보고하는 글의 주제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고서는 작성자의 능력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02 보고하는 글은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 체계성의 특성을 지닌다. ㉠은 기사문의 특징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보고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

객관성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야 함.
정확성	관찰, 조사,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함.
신뢰성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야 함.
체계성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과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함.

03 ‘효주네 모듬’은 보고하는 글을 쓰기 위해 조사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자료 정리하기’ 단계에서 할 일로 이 만화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지호’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민아’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하려는 표절의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지호’와 ‘민아’의 행동은 모두 쓰기 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내공 기르기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해. 그만큼 쓰기 윤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쓰기 윤리의 개념과 쓰기 윤리를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 두어야 해. 쓰기 윤리란 글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을 말해.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표절하지 않아야 하지. 만화에서 ‘지호’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왜곡하려고 했어. 또한 ‘민아’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표절하려고 했어.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쓰기 윤리를 위반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지.

05 보고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하여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짜 맞추어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6 서술형 <보기>의 보고서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수집된 자료는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전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서 보고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썼다.	☐
완전한 문장으로 썼다.	☐

07 (가)는 쓰기 윤리의 측면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08 (나)를 통해 '서상돈'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 보상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라는 것(ㄴ)과 '이상화' 시인이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담은 시를 쓴 민족 시인으로, 대표작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있다는 것(ㄷ)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나)에 '서상돈 고택'의 위치는 '이상화 고택'의 맞은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상화 고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ㄴ. '이상화' 시인의 인터뷰는 나와 있지 않다.

ㄹ. 국제 보상 운동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기간을 알 수 없다.

09 보고하는 글의 '끝' 부분에서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요약하고, 소감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고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는 조사 목적 및 동기,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을 명시한다.

④. 보고하는 글의 '가운데' 부분에는 조사, 실험, 관찰 내용과 그 과정 및 결론이 드러나게 쓴다.

⑤. 보고하는 글의 '끝' 부분에는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요약하고, 조사자의 의견이나 소감을 제시하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내공 심화 문제

01 보고서를 쓰는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목적, 주제, 대상, 기간, 방법,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자료 정리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참고 자료]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계획할 내용

- 관찰, 조사, 실험할 대상
- 관찰, 조사, 실험의 목적 및 동기
- 일정
- 관찰, 조사, 실험의 방법 및 역할 분담 등

02 '조사 목적' 부분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이루고 있는 유적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조사했다고 하였다.

03 이 글은 '처음' 부분에 조사 목적과 조사 동기,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이, '가운데' 부분에 '청라 언덕'과 '삼일 만세 운동 길', '계산 성당' 등을 조사한 내용이, '끝' 부분에 소감과 자료 출처가 담겨 있으므로 보고서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히면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나)의 '② 삼일 만세 운동 길' 부분에 '삼일 만세 운동 길'이 1919년 삼일 운동 당시 만세 운동 집결 장소로 향하던 학생들의 지름길이자 비밀 통로 역할을 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⑤ (나)의 '③ 계산 성당' 부분에 '계산 성당'이 경상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자 고딕 형식의 건물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효주네 모뎀'이 쓴, 보고하는 글의 구성

처음	• 조사 목적 • 조사 동기 •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 조사 방법
가운데	• 조사 내용: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 소개 ① 청라 언덕 ② 삼일 만세 운동 길 ③ 계산 성당 ④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
끝	• 소감 • 자료 출처

04 '청라 언덕'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짓고 살았던 세 채의 서양식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누가 설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청라 언덕'은 '근대 문화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공원이다.

②, ③ 미국인 선교사들이 짓고 자신들의 집으로 사용하던 세 채의 주택은 선교사들의 이름을 따서 스위트 주택, 챔니스 주택, 블레어 주택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각 선교, 의료, 교육·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⑤ '청라 언덕'의 '청라'는 '푸른 담쟁이'라는 뜻으로 대구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 근방에 담쟁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하였다.

05 '③ 계산 성당'에서는 '계산 성당'의 역사적 의의, 건축 형식, 현재 모습과 '이인성 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 중 이 부분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계산 성당'의 외관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이다.

06 서술형 ㉠은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한 도표이고, ㉡은 '삼일 만세 운동 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한 사진이다.

평가 기준	확인
㉠의 '도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썼다.	☐
㉡의 '사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으로 썼다.	☐

내공 기르기

보고하는 글에는 표, 그래프, 사진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해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표나 그래프의 경우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거나 대상의 양상을 나타내어 내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여 주고, 사진은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지. 따라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에 적합한 매체 자료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체 자료의 종류와 그 효과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

07 보고하는 글을 쓸 때는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여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보고하는 글의 평가 기준

내용 및 표현 측면	•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는가? •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했는가? • 보고하는 글의 구성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했는가? •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 •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쓰기 윤리 측면	•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가?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 조사한 내용이나 결과 등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가?

어휘 문제

- 01 '계재'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을 뜻하는 말로, '공고문 게재'와 같이 쓰인다.
- 02 '고택'은 '예전에 살던 집.'을 뜻하는 말로, '전봉준 선생 고택'과 같이 쓰인다.
- 03 '유적지'는 '유적이 있는 곳.'을 뜻하는 말로, '우리는 어제 유적지 답사를 위해 이곳에 왔다.'와 같이 쓰인다.
- 04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을 뜻하는 말은 '공모'이다.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이라는 뜻이다.
- 05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을 뜻하는 말은 '왜곡'이다. '오역'은 '잘못 번역함. 또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뜻이다.
- 06 제시된 문장은 속담을 글 속에 끌어 쓰면 글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맥락이므로,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을 뜻하는 '인용'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07 제시된 문장은 쓰기 윤리를 준수하려면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면 안 된다는 맥락이므로,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을 뜻하는 '표절'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08 제시된 문장은 선생님께 알려 드린 결과와 지금의 실험 결과가 다르다는 맥락이므로,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을 뜻하는 '보고'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09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므로, '원래대로 회복함.'을 뜻하는 '복원'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10 며칠 뒤 '윤'과 여섯 친구가 약속 장소에서 모였다고 했으므로, '집결'은 '한군데로 모이거나 모여 뭉침. 또는 한군데로 모으거나 모아 뭉치게 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시행함.'을 뜻하는 말은 '집행'이고, '목적한 곳에 다다름.'을 뜻하는 말은 '도착'이고,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을 뜻하는 말은 '회의'이다.

4. 함께 살아가는 우리

(1) 사회를 비추는 문학

본문 50~57쪽



핵심 체크

- 01 ㉔: 50 프로, ㉕: (오아시스) 세탁소 사람들, ㉖: '강태국' 02 (1) × (2) ○
03 (1) 인간성 (2) 물질 만능주의
04 공간적 배경, 탐욕스러운



문제 맞보기

- 01 ⑤ 02 ④ 03 오아시스 세탁소



내용 확인 문제

- 01 ④ 02 ⑤ 03 ③
04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
05 ② 06 ① 07 ③



내용 심화 문제

- 01 ② 02 ④ 03 빨래의 때가 빠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하며,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04 ④ 05 ④
06 ⑤



어휘 문제

- 01 ㉔ 02 ㉕ 03 ㉖
04 이실직고하다 05 잠입하다
06 불미스럽다 07 참담하다 08 ②
09 ② 10 ②

핵심 체크

- 01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난장판으로 만든 안 패거리와 이에 대항하는 세탁소 사람들의 갈등이 '안유식'의 50 프로 제안으로 '강태국'과 '강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갈등으로 바뀌게 된다. '안유식'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할머니의 간병인인 '서옥화'와 세탁소 사람들 중 '장민숙', '강대영', '염소팔'까지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게 된다.
- 02 (1) '강태국'이 사람들을 세탁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빨래의 때가 빠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한다.
(2) 작가는 세탁 장면을 통해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03 (1) 이 작품에서는 물질에 눈이 멀어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2) 안 패거리는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가 언제 쓰러졌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않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인 도리는 잇고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며 세탁소에 잠입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판하고자 한다.

04 오아시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서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이 희곡의 공간적 배경인 '오아시스 세탁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문제 맛보기

01 세탁 장면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문학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돈에 눈먼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02 이 작품은 할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강태국'을 대조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이 글에서 안 패거리리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믿지 않는다. 따라서 내 가족만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이 글에서 '강태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중시하는 인물이지만, 이는 작가가 지향하는 바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오아시스 세탁소'는 이 희곡의 공간적 배경이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다.

내용 확인 문제

01 '강태국'을 제외한 사람들이 검은 복색 일색으로 우스꽝스럽게 꾸며 입고 세탁소에 잠입하여 옷들을 뒤지다가 서로의 소리에 놀라 야옹거리고, 그림자에 놀라 짹짹거리는 모습은 웃음을 유발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할머니는 세탁소에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옷을 맡겼다.
 ③ 이 글에서 오아시스 세탁소는 등장인물 '강태국'이 운영하는 현실의 공간이다.
 ⑤ 주인공인 '강태국'은 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할머니의 재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02 이 글에서 안 패거리리는 다짜고짜 세탁소에 들어와 옷을 뒤지고 '장민숙'을 밀어 넘기는 등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런 행동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안 패거리리의 인간성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안유식'이 앞으로 떠밀려 나와 '강태국'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일 뿐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사과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안 패거리리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잠입했을 때에도 '안유식'과 '허영분', '안경우'와 '안미숙'으로 팀이 갈린다. 따라서 이들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안 패거리리는 세탁소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안 패거리리의 속마음이 따뜻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안유식'은 세탁소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 세탁소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글에는 어머니가 언제 쓰러졌는지,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모습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 세태가 드러난다. 또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간성을 포기하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가치관의 대립은 '강태국'과 '강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며 세대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ㄷ. 서로를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안 패거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강대영'과 '장민숙'이 가족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 기르기

이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살펴봐야겠다.

04 서술형 할머니의 재산에 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작은 전등을 입에 물고, 머리에 달고, 손에 들고 세탁소에 잠입하여 옷과 옷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5 '강태국'을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세탁소에서 할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돈을 차지하기 위해 밤늦게 세탁소에 잠입했다.

06 ㉠은 '강태국'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잡기장에서 할머니가 맡긴 세탁물에 관한 내용을 발견한 부분이다. 세탁소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는 다음 내용을 통해 ㉠은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대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강태국'이 잡기장에서 할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자 할머니의 옷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갈등과 극적 긴장감이 심화된다.

③ '강태국'은 할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잡기장에서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찾은 것이 아니므로 '강태국'의 속물적인 내면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세탁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적힌 아버지의 기록장인 '잡기장'을 통해 할머니 옷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으므로, '잡기장'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7 '안경우'는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어머니가 재산에 대해 자세하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안경우'가 어머니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01 이 글의 작가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배금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모습과 세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며, 순수한 인간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에 대한 풍자 및 순수한 인간성에 대한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02 (가)에서는 어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로 쳐들어온 안 패거리와 그들에게 대항하던 세탁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나)의 '안유식'의 50 프로 제안 이후, (다)에서부터는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주려는 '강태국'과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단서가 되는 옷 보파리를 찾으려는 나머지 사람들의 갈등으로 변화한다.

오답 풀이 ① 안 패거리는 50 프로 제안 이전에 서로를 의심하며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다. 또한 50 프로 제안 이후에도 가까워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세탁소 사람들 중 '장민숙'과 '염소팔'이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며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안 패거리와 단합한 것은 아니다.

③ '장민숙'은 돈에 욕심을 내고 있으며, 세탁소를 계속하자고 결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안 패거리는 어머니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간신히 '세탁'이라는 말만 남긴 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03 서술형 (마)에서는 세탁 장면을 통해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이 장면은 빨래의 때가 빠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며,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세탁 장면에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썼다.	☐
세탁 장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썼다.	☐

04 ㉠에는 자식들 간의 의가 상황까 봐 말하지 못한 할머니의 비밀 즉, 모든 재산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썼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따라서 ㉠은 자식들에게 헌신한 할머니의 삶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자식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알 수 있다.

05 '강태국'은 물질에 현혹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잊고 세탁소에 잡입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인간다운 사람을, ㉢는 물질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사람을 의미한다.

06 <보기>에서 한 시민은 복돈이 유행하는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에 젖어든 당시 사회의 단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중시하는 '강태국' 역시 시민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복돈 열풍은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가 만연한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따라서 할머니가 쓰러진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서옥화'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아 팔자를 고쳐 보려고 한다. 따라서 복돈이 유행하는 세태를 따르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장민숙'과 '염소팔' 역시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있으므로, 복돈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복돈을 사는 사람과 같은 입장을 보일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안 패거리는 어머니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 물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므로, 안 패거리가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 문제

01 '암전'은 '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을 뜻하는 말로, '암전 때마다 흘러나오는 음악은 긴장을 늦출 틈도 주지 않았다.'와 같이 쓰인다.

02 '임종'은 '죽음을 맞이함.' 또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을 뜻하는 말로, '할머니는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다.' 또는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한이 되었다.'와 같이 쓰인다.

03 '방백'은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를 뜻하는 말로, '(방백) 불을 꺼 버려!'와 같이 쓰인다.

04 '사실 그대로 알려거나 말하다.'를 뜻하는 것은 '이실직고하다'이다. 한편 '고발하다'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리다.'라는 뜻이다.

05 '남몰래 숨어들다.'를 뜻하는 것은 '침입하다'이다. '침입하다'는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오다.'라는 뜻이다.

06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한 데가 있다.'를 뜻하는 것은 '불미스럽다'이다. '불안하다'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다.'라는 뜻이다.

07 '끔찍하고 절망적이다.' 또는 '몹시 슬프고 괴롭다.'를 뜻하는 말은 '참담하다'이다. '암담하다'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또는 '어두컴컴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이다.

08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은 '난장판'이다. '외란'은 '외적이 일으키는 난리.'를, '쑥대밭'은 '매우 어지럽거나 못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이판사판'은 '딱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뜻한다.

09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는 공책.'을 뜻하는 말은 '잡기장'이다. '학습장'은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공책.'을, '필기장'은 '필기하는 데에 쓰는 공책.'을, '연습장'은 '연습하는 데에 쓰는 공책.'을 뜻한다.

10 세탁소에 숨어든 사람들이 각자 결심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다.’를 뜻하는 말은 ‘전하다’이고, ‘의견이나 요구 따위를 강하게 주장하다.’를 뜻하는 말은 ‘외치다’이다.

(2) 자신 있게 말하기

본문 58~65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1) ⊕ (2) ⊖
03 (1) 고개를 끄덕이며 (2) 질문
04 부끄러워하지, 부러워하지

문제 맞보기

- 01** ③ **02** ⑤ **03**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④ **07** ③
08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불안이 사라진다.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④ **06** ⑤ **07** ①

어휘 문제

- 01** ⊖ **02** ㉠ **03** 자신감 **04** 경청
05 불안 **06** 성취 **07** 전환 **08** 동의
09 ④ **10** ③

핵심 체크

01 (1) 말하기 불안은 무대 공포, 수줍음, 부끄러움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앞서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이다.

(2) 사람들이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자아 개념이나 성격, 내용에 대한 확신 부족,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 부족,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함 부족, 대중 앞에서 말해 본 경험 부족 등으로 다양하다.

02 (1)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는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에서 오는 말하기 불안 증상이다.

(2)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는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은 데에서 오는 말하기 불안 증상이다.

03 (1) 발표를 들 때는 온화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동의하는 부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좋다.

(2) 발표를 들 때 궁금한 점이 생기면 메모해 두었다가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손을 들어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발표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불안해도 괜찮고,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고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즉,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 맞보기

01 말하기 불안은 말하기 준비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말하기 경험 부족,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이 원인이 되어 생긴다. 또한,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역시 말하기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02 ‘송우연’은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에서 알 수 있다.
 ②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의 시선’에서 알 수 있다.
 ③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에서 알 수 있다.
 ④ ‘떨려서 목소리가 엷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에서 알 수 있다.

03 발표를 듣는 청중은 중요한 점이나 궁금한 점은 메모하며 듣는 것이 좋다. 이때 궁금한 점은 발표를 마친 뒤에 따로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발표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적극적으로 듣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자세이다.

내공 확인 문제

01 ‘송우연’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고, 발표를 하러 교실 앞에 나가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목청을 가다듬고 있다. 이는 ‘송우연’이 발표를 앞두고 매우 긴장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이것이 ‘송우연’의 습관인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②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송우연’은 깜짝 놀라며 ‘네! 네!’하고 대답하며 벌떡 일어서고 있다.
 ③ ‘송우연’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 말할 내용의 준비 부족,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④ ‘송우연’은 이름이 불리기 전에 시계를 쳐다보고, 손을 꼭 쥐고, 다리를 달달 떨며 긴장하고 있다.
 ⑤ 시계가 한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을 가리키고 있고, 발표를 하러 나간 ‘송우연’의 뒤로 칠판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만화의 시간적 배경은 오후 한 시간이 조금 지난 때이며, 공간적 배경은 학교 교실임을 알 수 있다.

02 말하기 불안은 내용에 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 말하기 환경이나 청중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청중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을 해소해야 말하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발표 순서를 미루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03 말하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면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중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질문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② 말하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달할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③ 청중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면 청중의 주의를 집중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비웃거나 탄압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④ 적절한 손짓과 표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말하기 불안을 숨기기 위해 손짓과 표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공 기르기

말하기 불안의 개념, 말하기 불안의 원인,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 둘 필요가 있어. 더불어 바람직한 청중의 태도도 기억하도록 해.

04 글쓴이는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라고 생각하고, 실수할까 봐 떨릴 때 '차라리 실수해 버리지 뭐.'라고 생각하였다. 또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고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글쓴이는 이렇게 불안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여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였다.

05 글쓴이는 예전에는 발표 불안을 겪었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 발표 불안을 극복했다고 하였다. 지금은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차라리 실수해 버리지 뭐.', '불안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는 것은 발표자를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만,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06 글쓴이는 상담을 하면서 회사에서 신년 연설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장님 등을 만나게 되면서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해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구나.'라는 걸 경험으로 확인하였으며, 결단 보고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니 자신 안에 남아 있던 불안도 날아가 버렸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불안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③ 말하기 불안은 인생의 성취 수준 혹은 성공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다.

07 글쓴이는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이 확 줄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발표 불안이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서술형 글쓴이는 발표 불안이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불안해도 되고,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고 말한다.

평가 기준	확인
글쓴이가 생각하는 발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내공 심화 문제

01 (가)의 '송우연'이 겪는 말하기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의 글쓴이도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불안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등에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차라리 실수해 버리지 뭐, 불안해도 괜찮다' 등과 같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 (나)는 각각 '송우연'이라는 등장인물과 글쓴이 자신의 말하기 불안의 경험이 담겨 있다.

③ (가)에서는 '송우연'이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겪었던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글쓴이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다른 사람의 사례까지 제시되고 있다.

④ (가)에는 발표를 할 때 불안을 겪었던 상황만 제시하고 있지만, (나)에서 글쓴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한 것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2 '송우연'은 말하기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라며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친숙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에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거나 발표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리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③, ④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에서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03 '송우연'은 청중이 어려운 질문을 할까 봐 걱정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점을 발표 도중에 질문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발표를 듣는 올바른 태도

- 발표자의 말을 경청한다.
- 동의하는 부분에는 고개를 끄덕인다.
-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질문에 대답한다.
-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며 듣는다.
- 궁금한 점은 발표가 끝난 뒤 손을 들어 질문한다.

04 글쓴이는 발표 불안을 느꼈을 때 머릿속 말들이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릴까 봐 종이에 꼼꼼히 발표 내용을 적어 놓고 읽었다고 했으므로, ‘종이에 적어 둔 것만 읽으면 돼.’는 발표 불안을 느꼈을 때에 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발표자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발표자가 청중의 태도를 상세히 평가했는지 살펴볼 필요는 없다.

06 청중은 발표자의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 내용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② 말하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한 사례이다.

③ 청중의 반응이 자신의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④ 발표를 들을 때 자신의 듣기 태도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07 <보기>의 사례는 청중이 불평과 잡담을 하자, 발표자가 더욱 위축되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경우이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발표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어휘 문제

01 ‘매한가지’는 ‘결국 서로 같음.’을 뜻하는 말로, ‘네가 숙제가 있었다는 것을 깜빡했든지 숙제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든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한가지이다.’와 같이 쓰인다.

02 ‘과도하다’는 ‘정도에 지나치다.’를 뜻하는 말로,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지 마라.’와 같이 쓰인다.

03 ‘자신이 있다는 느낌.’을 뜻하는 말은 ‘자신감’이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04 ‘귀를 기울여 들음.’을 뜻하는 말은 ‘경청’이다. ‘방청’은 ‘정식 성원이 아니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회의, 토론, 연설, 공판(公判), 공개 방송 따위에 참석하여 들음.’을 뜻한다.

05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을 뜻하는 말은 ‘불안’이다. ‘불만’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을 뜻한다.

06 제시된 문장은 목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맥락이므로, ‘목적한 바를 이룸.’을 뜻하는 ‘성취’가 빈칸에 들어가기 적절하다.

07 제시된 문장은 지금이 발상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맥락이므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뜻하는 ‘전환’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바라지 말라는 맥락이므로, ‘같은 의미. 또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을 뜻하는 ‘동의’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9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은 ‘우호적’이다. ‘개인적’은 ‘개인에 속하거나 관계되는 것.’을, ‘회의적’은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것.’을, ‘창조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과 관련되는 것.’을 뜻한다.

10 말하기 불안은 어떠한 말하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유창하다’가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물 흐르듯이 거침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평하고 올바르다.’를 뜻하는 말은 ‘공정하다’이고, ‘용기나 죽대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쉽다.’를 뜻하는 말은 ‘비굴하다’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